신한 톡톡 194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8
08

ISSUE 1 – 신임 총장 이 · 취임식
ISSUE 2 – 2018년 새롭게 단장한 신한대
ISSUE 3 – 2018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

·신한 빛·벗 축제
·김남용교수의 '의정부 문화재 사랑'
·신한대학, 평화한반도의 문 여는 '열쇠'쥐다
·라온제와 신한대체전

사제동행 세미나
Culture 서평
취 · 창업지원처 프로그램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톡톡'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서갑원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Tel.** 031 870 3205
• **발행일** 2018. 08. 31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박현규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Contents

01_US.KOREA.SOL.1010.599.GX
02_이념과 비전
04_ 총장 이 · 취임식
08_ 총장 인터뷰
12_신한 The 쎈세이션
14_신한과 지역사회 상생의 길을 가다
16_2018 신한 빛·벛 축제
20_김남용교수의 '의정부 문화재 사랑'
22_신한대, 평화한반도의 문 여는 '열쇠' 쥐다
26_2018년, 새롭게 단장한 신한대
30_신한대 '명예의전당'
32_2018 입학식 및 졸업식
36_2018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40_2018 수석입학자 인터뷰
42_신한대학교 보건계열학과 국가고시 합격율
44_섬유소재공학과 졸업생을 만나다
46_PBL 교육
48_신한대학교 사제동행 세미나
50_교수 칼럼
52_취·창업지원처 프로그램
56_로고스봉사지원단
58_공연예술학과 공연(악센)
60_2018년 신한류 K-POP 뮤직 페스티벌
64_라온제와 신한대체전
70_지식의 벽돌 쌓아올리는 중앙도서관
72_Culture 서평·책·영화·뮤지컬·전시
82_신한대학교 이모저모
90_대학발전기금
92_ 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2018 수시모집 4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대학이념

창학이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사명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으로
새로운 시대 발전에 공헌한다.

교육목적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선도적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 섬김을 위한 영성교육
· 인류를 위한 시민교육
· 국가를 위한 실용교육
· 자아를 위한 전문교육

교훈
· 사랑과 봉사
· 소통과 공감
· 지성과 창의
· 도전과 발전

인재상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Shinhan 國人)'양성
· 사명인
· 세계인
· 실용인
· 학습인

대학비전

Vision Statement
교육품질로 도약하는 취업명문
New-versity, 신한대학교

Vision Slogan
START for New-Quality

Strategy Goal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인재
더 나은 교육

Strategy
START Q 전략

S 신한국인(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T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A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R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T 재능(Talent)을 함양시키는 New-versity
Q 품질개선(Quality)활동을 통해 도약하는 New-versity

신한대학교
서갑원 제2대 총장 취임

“꿈꾸는 대학, 변화하는 대학, 함께하는 대학” 지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정 관 · 학계 인사 500여 명 참석

신한대학교가 종합대학 출범 4년 만에 제2기 총장시대를 열었다. 신한대는 7월 20일 의정부 캠퍼스 에벤에셀관 컨벤션홀에서 감사예배를 겸한 신·구 총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서갑원 총장은 제2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김병옥 초대 총장은 이임했다. 서 신임 총장은 국민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1비서관과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국민대에서 강의를 맡는 등 정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이날 이·취임식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제1대 김병옥 총장시대가 지난 4년 동안 창업과 아카데미의 기반을 다진 시기였던데 비해 제2기 총장시대의 개막은 수성과 도약의 시작을 뜻하기 때문이다. 서 총장이 취임사에서 “전통과 관행에 머무르며 혁신하지 못하는 조직은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고 사라지게 된다.”고 밝힌 것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서 총장은 신한대 제2기의 핵심을 ‘꿈꾸는 대학, 변화하는 대학, 함께 하는 대학’으로 정의하고 창업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더 큰 도약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위기는 곧 기회이며 지금이야말로 성장할 때”라고 지적한 서 총장은 “꿈은 한계를 뛰어 넘는 상상이며,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창의”라며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꿈,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꿈, 교육 100년지 대계의 초석이 되겠다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신한대학이 변화에 앞장서고 스스로 혁신의 길을 열어간다면 새로운 대학의 강자로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한대학교는 하나님이 주인인 학교”로 “내게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꿈꾸고 도전하자”고 말했다.

서갑원 총장은 ‘정자정야(政者正也)’와 ‘교자정야(敎者正也)’를 들며 “정치란 것은 바르게 하고 교육이란 것도 역시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세상을 바르게 하는 목표를 가졌다는 점에서 정치와 교육이 다르지 않다. 교육 문제의 해결이 바로 정치”라고 밝히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제2대 총장으로서의 서갑원 총장의 첫 ‘최선’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이었다. 서 총장은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어 가자”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신한이 되도록 총장실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학교 구성원들과 백 번 천 번이라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학교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며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나 직원 포털에 토론방을 만들어 학교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그대로 이행시켜 학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들의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우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은 신한인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신한대는 제2대 총장을 선출해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초융합, 초연결화, 초지능화, 초고속화 등의 기술로 인간 고유의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대학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힘든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 산업계는 물론 특히 대학을 선두로 하는 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신한인’을 들었다.

김병옥 전 총장에 대한 감사와 서갑원 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신한대학교는 인성 교육, 전문인 교육, 실용인 교육을 뼈대로 삼아 융복합으로 지평을 넓혀가며 그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서갑원 총장의 취임과 함께 또 다른 분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취임식에는 강신경 신흥학원 설립자와 신한대 교직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관·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20여 명을 포함해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학교법인 신흥학원 안현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교직원, 이석재 동문회장 및 총학생회 임원은 김병옥 초대 총장의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신임 총장을 중심으로 구성원 상호간의 화합과 대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다짐했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는 안현수 신흥학원 이사장의 설교에 이어 ‘김병옥 총장이 걸어온 길’ 동영상 상영과 감사패 전달, 신임 서갑원 총장에 대한 취임기념패 전달,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의 축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유지수 국민대총장, 이석재 동문회장의 축하영상 메시지, 로고스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신대현 기자

신한대학교 ‘2기 총장시대’ 개막…
제2대 서갑원 총장 취임식 열려
서 총장 “신한대학이 변화에 앞장…
새로운 대학의 강자로 앞서갈 수 있을 것”
서 총장, 함께 하는 대학으로 총장실 문 개방…
“소통의 장 만들겠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시대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신한인”

서갑원 제2대 총장 취임사

사랑하는 신한대학교 학생 여러분,
자랑스러운 동문 및 교직원 여러분, 함께 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갑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신한대학교 2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두렵고 떨립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우리 신한대학교는 창학 반세기를 넘어,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종합대학 승격 이후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처해있는 구조적인 환경들이 절망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한대학교 총장에 취임하며 느끼는
지금의 사명감은 더욱 크기만 합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대학 총장이란 자리에 서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정자정야(政者正也)’란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치란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교자정야(敎者正也)’저는 교육이란 것도 역시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하는 목표를 가졌다는 점에서 저는 정치와 교육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대학에 있으면서 교육 현장의 고충과 대학 교육의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문제의 해결이 바로 정치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을 맡아달라고 하신 재단 이사회의 제안에
‘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한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정도 제 평소 소신 겸 당부 말씀을 드리며
취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꿈 꿔보십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꿈꾸는 요셉은 온갖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꿈꾸지 않았다면 애플과 아이폰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AI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꿈을 꾸느냐 못 꾸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꿈은 한계를 뛰어 넘는 상상이며,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창의인 것입니다.

신한대학교 가족 여러분,
함께 꿈 꿔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꿈 꿀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꿈,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꿈,
교육 100년지 대계의 초석이 되겠다는 꿈,
이 꿈들을 함께 꿔 봅시다.
신한대학교가 꿈꾸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대학이 됩시다.
변화는 곧 도전입니다. 혁신의 실천입니다.
전통과 관행에 머무르며 혁신하지 못하는 조직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100년 전 다우존스 100대 기업들 중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몇 개 없습니다.
20세기 세계 최고 1등 기업 GE마저도 한 달 전 다우지수에서 퇴장 당했습니다.
대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의 최고 대학도 아시아 14위 수준입니다.

변화하는 조직이 세상을 선도합니다.
우리 신한대학가 변화에 앞장서고 스스로 혁신의 길을 열어간다면,
새로운 대학의 강자로 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한대학교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교육의 새로운 100년지 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어 갑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급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신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원 구성원들과 백 번 천 번이라도 대화하겠습니다.
총장실의 문은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학교 발전의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총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 대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직원 포털에 토론방을 만들어 학교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학교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투명한 공개가 민주적 참여로 이어집니다.
우리 신한의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한 가족 여러분,

많은 대학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얘기하자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성장할 때라고 여기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한대학교는 하나님이 주인인 학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인인 학교입니다.
내게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꿈을 꿔 봅시다!
도전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신한대학교 총장 서 갑 원

신한대학교의 비전, 총장에게 듣는다.

과거의 영광을 회고할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피와 땀 흘리는 개혁 없는 생존보장 환상에서 벗어나야... 희망, 변화, 공동책임 없는 집단은
존재 이유 없어, 개혁거부 조직은 적폐...과감한 의식개혁과 조직을 활성화 할 것

신한대학교 '제2기 총장시대'를 열고 짧은 기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서갑원 총장은 "변화하지 못하면 죽는다. 꿈이 없으면 생각 없는 미물로 살아야 한다. 함께 부딪치고 고민하지 않으면 남은 것은 함께 소멸하는 길 뿐"이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또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고 있을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다. 피와 땀을 흘리는 개혁 없이 생존이 보장된다는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나야 한다."고 구성원들에게 요구했다. 서 총장은 모든 대학이 해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신한대학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한 의식개혁과 조직의 활성화"라고 강조하고 "개혁하지 않는 조직은 적폐를 옹호하는 수구조직이며 희망, 변화, 공동의 책임이 없는 집단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제2 도약'을 위한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서 총은 이와 함께 재정확대, 재학생 충원율 높이기, 장학금 복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말하고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자신에 대한 믿음, 소통능력을 신한인들에게 주문했다.

Q. 신한대학교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대학 구성원들과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총장 제의를 받아들이신 계기는 무엇인지요.

A. 제가 의욕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취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성원들을 만나보니 그들 역시 희망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낀 것 같습니다(웃음). 실제로 통·폐합 후 대학 평가 등 외부적인 압박까지 더해져 구성원들의 지친 모습과 변화를 원하는 모습이 보여 총장 취임은 나에겐 마치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취임 전 가장 컸던 고민은 총장 자리가 차세대를 위한 역할론과 관계가 깊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인큐베이팅해서 사회로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었고 그들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Q.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과 신한대학교의 현주소를 함께 진단해 주시지요.

A. 대학의 문제는 신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경제성장기에 대학 설립 자율화 정책으로 입학정원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가계부담 경감이라는 사회적 요구로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는 바람에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기관인증평가와 기본역량진단으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5만여 명을 줄이고 추가로 5만 명을 더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은 통폐합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아직 받지 못해 재정지원을 못 받고 있고, 국가장학금 마저 받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어쩌면 호사스런 단어일지 모릅니다. 위기 정도를 넘어 패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입니까.

A. 저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꿈을 꿀 수 있는 대학, 두 번째, 변화하는 대학, 세 번째, 함께 하는 대학입니다. 희망, 변화, 공동의 책임이 없는 집단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프랑스 문호 셍떽쥐베리는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 아이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단과대학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신한대학의 행복한 어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박, '사느냐 죽는냐'의 냉엄한 현실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꿈이 없으면 생각 없는 미물로 살아야 합니다. 함께 부딪치고 고민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함께 소멸하는 길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고 있을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는 개혁 없이 생존이 보장된다는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의식개혁과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개혁하지 못하는 조직은 적폐를 옹호하는 수구조직입니다.

Q. 우리는 내년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게됩니다.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남은 기간에 우리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전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 대학과 비슷한 여건의 타 대학 사례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저가 생각한 전략은 대학재정 강화, 재학생 충원율 제고, 취업률 강화 노력, 지역사회 봉사와 기여 등 네 가지입니다. 재정확대를 위해 부서, 단과대학별 유치 확대 노력을 기울이면 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도 개선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대학 편제가 뿌리 내리는 데는 6-7년이 필요합니다. 올해 재학생 충원율은 80%가 넘어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지만 기관평가인증 기준인 80%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모든 대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취업명문의 전통을 이어 받아 4차 산업혁명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올인 할 생각입니다. 지역사회 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Q. 신한대학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서울과의 접근성, 보건계열의 강점,지역사회 공헌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2개의 캠퍼스 보유와 연구 성과는 신한대학의 강점입니다. 특히 부설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과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이 펼친 국제학술대회, 학술세미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연구 노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들이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느라 지쳐있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교육부로부터 통·폐합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받다보니 교양 및 전공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충분히 담보해 내지 못하고 캠퍼스 분리운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도 단점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질 관리 체제로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Q. 신한대학교는 경기북부를 모태로 출발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 속의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A. 세계적인 석학들은 미래에 생존하는 대학은 연구역량이 탁월한 대학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 두 가지입니다. 이 예측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저는 이미 지역사회와 동행했던 실적을 바탕으로 대학, 산업체,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경기북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보건 계열, 공과계열, 글로벌 비스니스 계열, 디자인예술 계열은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경기북부 관광 수익 모델 개발도 그 중 하나입니다. 향후 동두천에 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맞춤형 산업인력 육성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Q. 해외 네트워크 확대 등 신한대학교의 국제화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A. 캐빈 리는 저서 '대학의 미래'에서 '20년 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과거 100년 간 존재했던 종합대학 모델은 사라진다'고 예언했습니다. 극단적인 경고이기는 하지만 혁신대학의 상징이자 학문과 강의의 노마드(유목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의 빠른 확산 등을 고려하면 미래 대학의 지형을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해 후발주자인 우리 대학은 러시아, 중국, 몽고 및 동남아를 대상으로 글로벌 캠퍼스 설치와 국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는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중 하나입니다.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해외에 우리 대학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대학의 강점인 보건, 국제어학, 사회과학 분야의 글로벌 캠퍼스 설치하는 한편 보건과 바이오 분야에서 학교기업을 활용한 국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새로운 방식의 재정 확보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총장님은 학생들의 복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학생들과 대화를 자주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미래 복지에 대한 방향과 해법을 말씀해주십시오.

A. 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이자 소비자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와 복지서비스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간부들과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학생복지 중 단연 으뜸인 장학금 지원은 장학금 운영 재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캠퍼스가 상대적으로 1캠퍼스에 비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행복기숙사 건립에 맞춰 복지 공간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소통 또한 심리적인 복지인 만큼 총장 직속 소통게시판 운영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Q. 신한대학교 구성원들은 총장님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나라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경험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지하신 대학 현실에 대한 판단과 비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신한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정치와 교육의 본질은 바르게 하는 것 이란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 소신은 바른 교육시스템, 바른 소통, 바른 사회적 기여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정치활동과 간간이 타 대학 교수로서 활동한 경험을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십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신한인들에게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 자신에 대한 믿음, 소통력 키우기,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싹트면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발견하지 못한 장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 유지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게 됩니다. 공자는 '3인행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의 단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성숙해지고, 상대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삼아 또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신대현 기자

SHINHAN THE SENSATION

Campus

· 2018년 새롭게 단장한 신한대
· 보내는 아쉬움, 맞이하는 기쁨 - 제 1회 졸업식, 제 5회 입학식
· 새내기들의 시간, 2018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신한대 수석입학! 54세 만학도 김호경씨
· 신한대 보건계열학과 국가고시 합격율
· 섬유소재공학과 졸업생을 만나다
· PBL 교육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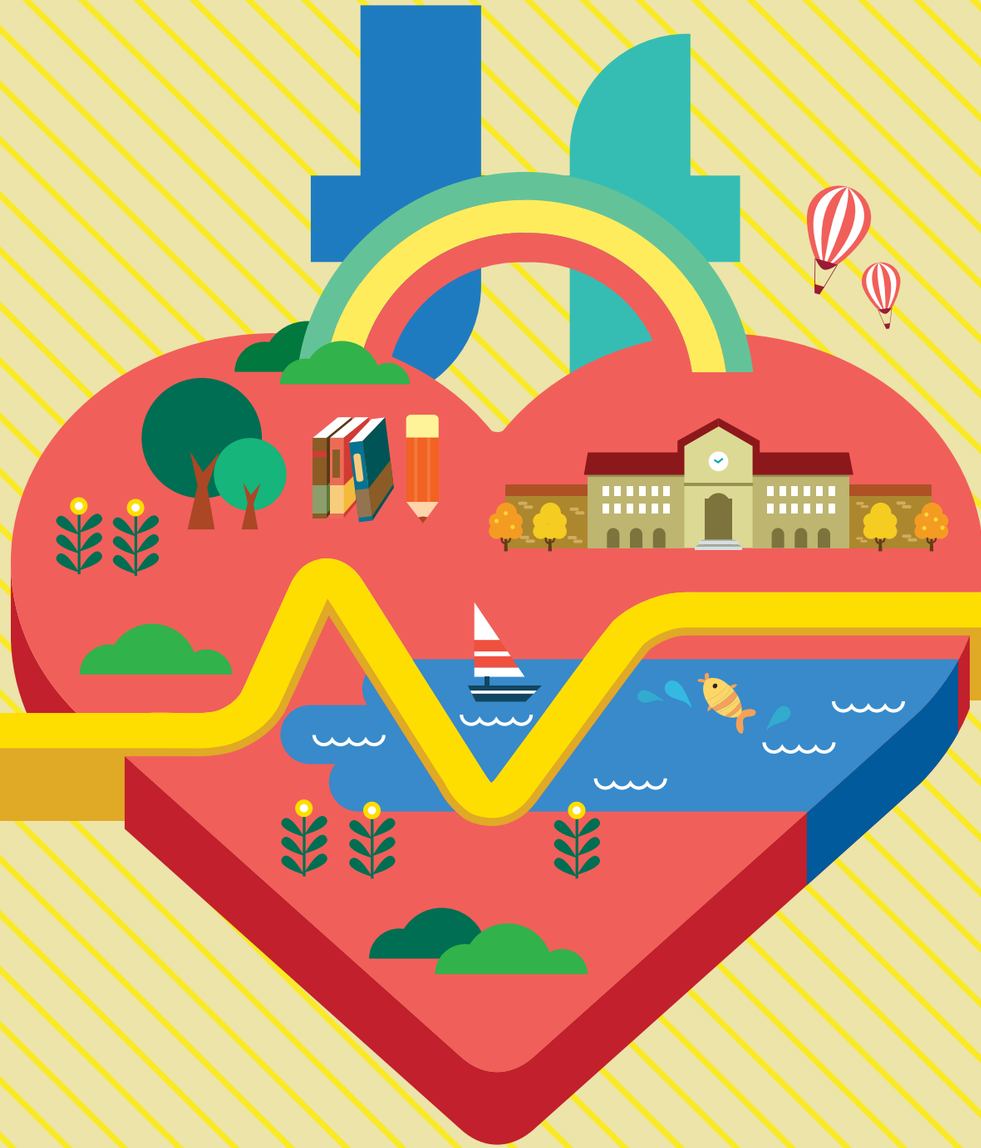
· 신한과 지역사회, 상생의 길을 가다.
· 신한 빛 · 벚 축제
· 김남용교수의 '의정부 문화재 사랑'
· 신한대학교, 평화한반도의 문 여는 '열쇠' 쥐다
· '지식의 벽돌' 쌓아올리는 중앙도서관

Class

· 사제동행 세미나, 교수와 학생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
· 교수 칼럼,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신한인들에게
· 골라 듣는 재미 취 · 창업처 프로그램
· 로고스 봉사단
· 진화하는 악센- 공연예술학과 공연
· 2018 신한류 K-POP 콘테스트
· 축제 및 체전, 한여름에 빛난 신한의별들

Culture

· '지식의 벽돌' 쌓아올리는 중앙도서관
· '지상의 양식' 앙드레 지드
· '톡톡'이 추천하는 세 권의 책 - 지상의 양식, 현남 오빠에게, 걱정에 대하여
· 영화 - 참정권을 위한 여성들의 투쟁, '써프러제트'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2관왕에 빛나는 영화 '버닝'
· 뮤지컬 - 천재시인 이 상의 삶, 스모크
· 전시 - 20세기 현대조각 거장, 자코메티를 만나다



신한과 지역사회, 상생의 길을 가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전설적인 학장 헨리 로소브스키는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취득한 면허수 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대학의 질은 따로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보스턴 주변에 있는 MIT 등 30여 개 대학은 지역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 학문의 발전을 꾀하고, 지역은 대학의 우수한 인재의 도움으로 발전한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의 기능 가운데 사회적 기능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접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은 연구와 기술개발의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맺거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공존과 공생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사상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힘든 대학이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과 창조적인 파트너십 관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아카데미즘만 추구하는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이제는 이념의 벽을 넘어 지역과 연계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두 주체는 수혜자이자 시혜자이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밀착될 것이다. 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는 대학을 보호하고 돕는 유기적 조직체로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높여 갈 것이다. 시너지 효과는 지역축제를 포함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것이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동행하는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

박현규 편집장

신한 빛·벗 축제

신한대는 항상 지역과 함께 간다!

신한대는 경기북부 지역축제의 상수(常數)
"지역사회의 발전 없이 대학 발전 없다"

대학과 지역사회, 두 개의 공간이지만 하나의 공동체

벚꽃마당 동두천 캠퍼스에서 군·관·민·학 일체감 조성하는 2018 신한 빛·벚 축제 개최

1746년 설립된 미국 뉴저지 주 소재 프린스턴대학은 해마다 4월 지역 어린이들을 캠퍼스로 초청해 백마가 이끄는 고색창연한 마차로 캠퍼스를 돌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인구 3만여 명의 타운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축제를 즐긴다. 오클라호마대학 등 주립대학도 해마다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연다. 주립대학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대학은 지역 주민에 대해 그만큼 돌려준다는 명분이다. 대학은 대부분 도시 한가운데 있거나 도시와 인접해 지역과 동고동락한다. 하버드대학은 보스턴의 일부이고 파리대학도 파리의 일부이다. 독일 훔볼트대학도 베를린의 일부이다. 대학 없이 도시가 발전할 수 없고, 도시 없이 대학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포르투갈 꼬임브라대학은 수세기 동안 전해진 포르투갈의 전통음악 '꼬임브라 파두(fado) 부르기' 축제를 지역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해마다 연다. 축제의 공간은 지역으로 확장되어 도시차원으로 열린다. 대학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하나로 묶인 경우이다. 미술 전시회, 영화, 연극제, 투우,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 프로그램도 도시에서 펼쳐진다. 이 축제에는 매년 6만 명 이상이 몰려 대학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고 있다.

신한대가 주최하는 다양한 축제 중 올 들어 처음으로 벚꽃이 활짝 핀 동두천 캠퍼스에서 열린 2018 신한 빛·벚 축제는 지역주민, 지역시민단체, 다문화가족이 참가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동두천시 후원, ㈜다산아이엔지 주관으로 4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두천 신한대 캠퍼스에서 펼쳐진 축제는 '문화와 예술, 사람과 사람, 지역공동체 통합의 장'이라는 주제로 관·민·학을 하나로 묶는 지역공동체 통합의 축제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봄철축제 이상의 축제였다.

신한 빛·벚 축제

이날 축제에서는 ▲찾아가는 신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부스 운영(심리검사, 상담 등) ▲세계 여러 나라 전통의상 체험 부스 운영 ▲페이스페인팅&헤나 체험 부스 운영 ▲지역 기업부스 운영 (패브릭플라워 소품, 양초공예, 가죽공예, 생활전통공예, 클레이공예, 커피나눔, 목공예, 기본공예, 프리저브드 플라워) ▲지역 의료기관 부스 운영(치과 검진) ▲카이로프렉틱 체험 ▲먹거리존 운영(푸드트럭)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또 ▲청소년 동아리 공연(신흥고 블랙초크, 의정부공고 B-boy) ▲신한대 공연예술학과 K-pop 공연 ▲신한대 힙합동아리 '악당' 공연 ▲전자현악 퍼포먼스(T.L) ▲초청가수 공연(임병수, 양혜승, 김민교) ▲지역민 참여 댄스 경연대회(재즈댄스, 라인댄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가 열려 즐거움을 나눴다.

신한대학이 여러 개의 지역축제 한마당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 없는 대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학교 캠퍼스는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서로 뒤섞여 있는데다 대학생도 지역시민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분리된 두 개의 공간이지만 공동체 의식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대학의 기능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과 화합함으로써 지역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함께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공공성은 단순히 대학이 지역사회에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섞이며 소통하고 새로운 변화의 기반을 닦는 일을 담당할 때에만 공공성은 회복될 수 있다.

신문사 주간 이선민교수

신한대학 김남용 교수의 '의정부 문화재 사랑'

6.25전쟁 폐허서 살아남은 문화유물 집중조사

정문부 장군묘 노강서원은 40개 문화재 중 조명 덜 된 곳
신한대 30여 년 재직 중 '의정부문화재 길라잡이' 펴내기도
'의정부학' 정립 집중… "문화재 답사 교양과목 개설 했으면…"
'답사 전문가' '커피 도사'…연구실에 학생전용 커피잔

▲ 김남용 교수 연구실 뒤로 보이는 커피잔은 찾아오는 손님(학생)용 전용컵으로 고객카드를 만들어 관리한다. 커피를 좋아해 생두 판별부터 그라인딩, 로스팅까지 직접 한다.

의정부시에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 21개와 의정부시 지정문화재(향토문화재) 19개를 합친 총 40개의 문화재가 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에는 망월사 헤거국사부도와 회룡사 오층석탑을 비롯해 10개가 있고, 정문부 장군묘와 노강서원 등 4개의 기념물과 망월사 천봉당 태흘탑을 포함한 7개의 문화재 자료가 있다. 향토문화재에는 주로 인성군묘, 정빈민씨 묘 등 묘들이 많다.

하지만 의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국보나 보물이 많이 없는 편이다. 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김남용 교수는 "한국전쟁의 여파로 파괴되어 그렇다"며 "하지만 망월사는 오래된 절이다 보니 문화재가 많고, 역사가 깊고 산 속에 있어 화를 면했다"고 말했다.

김남용 교수는 20년간 전국에 있는 절터를 돌아다니며 조사하고 답사한 '답사 전문가'이자 "생각나면 낮밤 가리지 않고 배낭 하나 메고 바로 떠났다"고 말할 정도로 50개 국 넘게 여행을 다녀온 '열혈 여행가'이다.

특히 그는 경기북부 중 의정부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의정부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의정부는 각별한 곳이다. 의정부에 대한 그의 애정은 논문과 활동경력에서도 묻어나온다. 1992년부터 '의정부학 정립을 위한 추진 방안'과 '유엔사무국의 의정부시 유치에 관한 연구' 등 꾸준히 의정부를 연구해왔다. 또한, 22년 가까이 의정부시 관련 기관의 위원을 맡거나 자원봉사센터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의정부시 의제21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의정부문화재 길라잡이'란 책자도 펴냈다.

그가 요즘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 문화재들이 있다. 첫째는, 경기도 지정 기념물인 정문부 장군묘이다. 정문부(鄭文孚, 1565년~1624년) 장군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함경도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이다. 정문부 장군은 함경도 북평사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서 명천, 길주 등에서 왜군과 싸워 승리하여 관북지방(함경도) 일대를 수복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특히 함경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북관대첩(北關大捷)이라고 부르는데, 임진왜란 최대의 육전으로 꼽히는 승리이다. 왜군을 물리친 정문부 장군 묘역 오른쪽에는 장군의 전공을 기리는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가 세워져 있으며, 이 비에는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거느린 왜군을 무찌른 사실이 자세히 적혀있다.

김 교수가 관심을 가진 또 다른 문화재는 조선 숙종 때 문신인 박태보(朴泰輔, 1654년~1689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노강서원이다. 박태보 선생은 1689년(숙종 15년)에 인현왕후 민씨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진도로 유배를 가던 중 노량진에서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1694년(숙종 20년) 죄를 사면받고 충절과 학문이 높이 평가되어 영의정 벼슬과 문열(文烈)의 시호가 내려졌다. 원래 서원은 서울 노량진에 세웠으나 한국전쟁으로 불 탄 후 1968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복원한 것이다. 노강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폐쇄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이들 두 개의 문화재는 명성에 비해서 상당히 조명이 덜 된 곳이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박태보 선생의 아버지인 서계 박세당은 고교 국사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인물"이라며 "의정부의 역사적 인물로 콘텐츠를 만들거나 상품화를 시킨다면 이 두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 명성에 비해 조명이 덜 된 곳으로 의정부 공설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엄복동 동상'을 들었다. 엄복동 동상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동상이다. 엄복동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선수들을 물리치고 자전거 대회를 재패한 인물이다. 비록 자전거경기라는 제한된 부분이었지만, 암울한 시대에서 그의 우승은 민족적 일체감과 자긍심을 이끌었다. 김 교수는 "엄복동은 그 당시 국민적 영웅이었으며 '하늘에 안창남, 땅에 엄복동'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하게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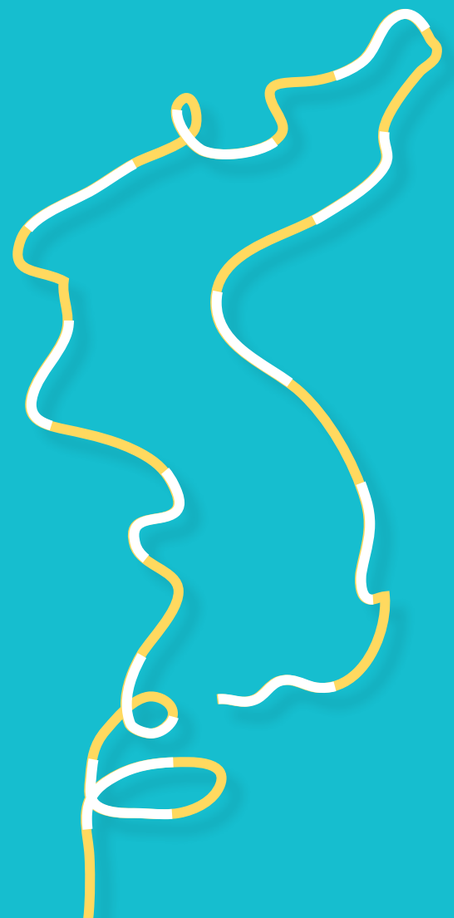
하지만 김 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다. 그는 "역사를 모르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된다"며 "학생들이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기도나 경기북부 문화재를 답사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게 된다면 북한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느냐" 는 질문에 "경의선을 타고 쭉 이동하며 북한에 있는 옛 절터를 다 돌아보고 싶다"라고 말해 역시 '답사 전문가' 다운 모습을 보였다.

신대현 기자

신한대학, 평화한반도의 문 여는 '열쇠' 쥐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경기북부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교류협력의 중심이자 전진기지가 될 신한대학교… 각 분야 전공학과 역할 기대
신한대 문화예술 특화전략… 새로운 한류 열풍의 지평으로 북쪽에 따뜻한 바람
최완규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신한대가 새로운 중심대학으로 우뚝 설 것"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남북을 갈라놓은 '경계'를 쉽게 넘나드는 모습은 분단 7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남북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손을 맞잡아 인사를 주고받고, 웃음꽃을 피운 채 만찬을 즐기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온 것을 실감했다. 군사분계선은 높고 견고한 장벽이 아니었는데도 그 낮은 턱을 넘어오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들었을까 싶기도 하다.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 1994년 북측 군사정전위 해체 시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42만 건을 훨씬 넘는다. 이후에도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등 대규모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6·25 이후 2011년까지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연도는 54, 56, 72, 88, 89년으로 단 5년뿐이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을 시작으로 남북예술단합동공연, 남북정상회담, 대북확성기 철거 등 남북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에 금이 가고 경계의 구분이 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종전이 되어 양쪽을 오고 갈 수 있게 되면 경의선을 타고 금강산 구경도 하고, 평양냉면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건가"하고 기대하고 있다.

남북 평화에 대한 파주 시민들의 기대는 타 지역과 남다르다. 접경지역에 사는 파주 시민들에게 늘어선 철책과 울려 퍼지는 대북·대남방송을 보고 듣는 것은 일상이었다.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인 파주 군내면 대성동초등학교는 판문점과 1km, 군사분계선과 불과 400m 거리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넨 두 학생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한 대성동초등학교는 평소에도 하루 종일 확성기 소리에 야외수업을 하지 못했던 곳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판문점 선언' 이후 5월 1일 대북확성기가 철거되면서 이들의 일상은 주민들끼리 파티를 여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바람 타고 비상의 나래 펴는 신한대학교

파주 군사분계선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경기북부 전체로 불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통일한국'의 미래의 땅임과 동시에 개발제한과 안보위협에 노출된 규제와 희생의 땅"이라며 "경기북부 지역은 통일한국의 미래가 될 번영과 발전의 심장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북부가 변화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위해선 물 샐 틈 없는 전략과 발 빠른 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대륙과의 연계를 가져와 교통과 물류, 에너지 망을 형성할 것이고 그 중심으로 경기북부가 자리매김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접경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신한대학교는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안성맞춤이다.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문화와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동체 협력의 첫 시작은 경기북부 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말라리아 문제 해결이다.

1980년대 남한에서 말라리아는 사라진 질병이었으나 1990년대 북한의 보건 의료체계 붕괴 이후 남북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서부 접경 지역 일부 시 • 군 거주자의 경우 잠정적인 말라리아 보균자로 취급되어 헌혈이 제한되는 실정이며 그 지역에서 경계를 서는 군인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었다. 나아가 평양 외부의 많은 병원들은 약과 장비, 인력도 부족하다. 남북한의 공동 대처와 협력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전공학과 특성 · 이점을 살려 남북공동체 형성에 기여 가능

그 협력의 중심에 신한대 보건과학대학과 간호학과가 우뚝 설 가능성이 높다. 신한대 임상병리학과는 지난 해 12월 23일 실시된 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서 124명 중 97%인 120명이 합격해 전국 평균 83.8%를 웃돌았다. 방사선학과도 올해 1월에 실시한 방사선사 자격시험에서 58명이 응시해 96.2%(56명)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가자격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신한대 보건계열 학생들이 미래에 남북한 공동체 형성과 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음식 등의 '한류 열풍'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북 · 중 국경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한국 영상물과 음악을 접할 수 있고 중국의 전파가 닿는 곳에서는 한국 드라마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자인예술대학의 디자인학부와 공연예술학과의 역할도 중요하게 떠오른다.

디자인학부는 여러 전시회를 통해 호평을 받아왔다. 공연예술학과는 꾸준한 공연과 연극으로 실력을 입증했고, 댄스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댄스 팀이 아시아 대학댄스선수권대회 결선에 진출하는 등 각종 분야에 특출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공연예술학과 15학번 배우 김희진 씨는 제53회 대종상 영화제 뉴 라이징상 수상에 이어 지난 해 제37회 황금촬영상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한대는 '신한류 k-pop 뮤직페스티벌',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신한대는 문화예술특화 전략을 앞세워 경계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예술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관광경영학과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광사업이 요즘 뜨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기북부는 항상 불안의 공간이자 섬나라와 같았다. 지리적 특성 상 경기북부는 군사보호 구역과 개발제한 등 중첩적인 규제로 낙후되고 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또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어 지역 관광산업이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경의선(서울~도라산)과 경원선(서울~백마고지) 하루 이용객 수가 달라졌다. 남북정상회담 이전 이용객은 각각 166명, 2,202명이었지만 회담 이후로 304명과 3,473명으로 이전보다 각각 83%, 58% 늘었고, 도라산역의 하루 방문객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DMZ나 안보관광지 이용객들도 늘었고 시민들은 관광코스 확대와 금강산관광이 재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전 세계가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도 안보관광지를 많이 찾고 있어 글로벌관광경영학과의 역할이 더 부각된다.

최완규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신한대학교가 새로운 중심의 대학으로 우뚝 설 것"

경계문제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는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의 어깨도 무겁다.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경기북부의 역할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연구원의 역할도 그만큼 부각되고 있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평화학대학원, 일본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과 함께 연구교류협약을 맺고 협력기관에 소속된 세계적인 석학들과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해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정부가 전문가 중심의 원로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주요 멤버의 한 명으로 최완규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을 위촉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 하루 앞선 26일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토론회'를 주재해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의 연구방향은 일방적인 통일이 아닌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제도화된 평화이다. 통일을 노골적으로 강조한다면 관계가 진전되기 보다는 오히려 문을 닫고 서로 대립하며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 생각하는 최 원장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체제나 제도가 서로 엇비슷해져야 통일 이후의 정치 공간에서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믿는다.

최완규 원장은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 과학기술, 관광, 교육, 문화예술 등 여러 전공 특성들을 살린 프로그램과 교류협력 사업을 해 나간다면 신한대학교가 남북관계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중심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군대를 상징하는 도시에서 평화와 교류의 상징 도시로 경기북부가 탈바꿈하고, 신한대가 경계가 허무는 데 탁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2018년 새롭게 단장한 신한대

1캠퍼스 정문 신축! 화합과 열정으로 대학발전 기원
학교 정체성에 맞춰 13개 캠퍼스 건물 명칭 변경
3개학과 이름도 바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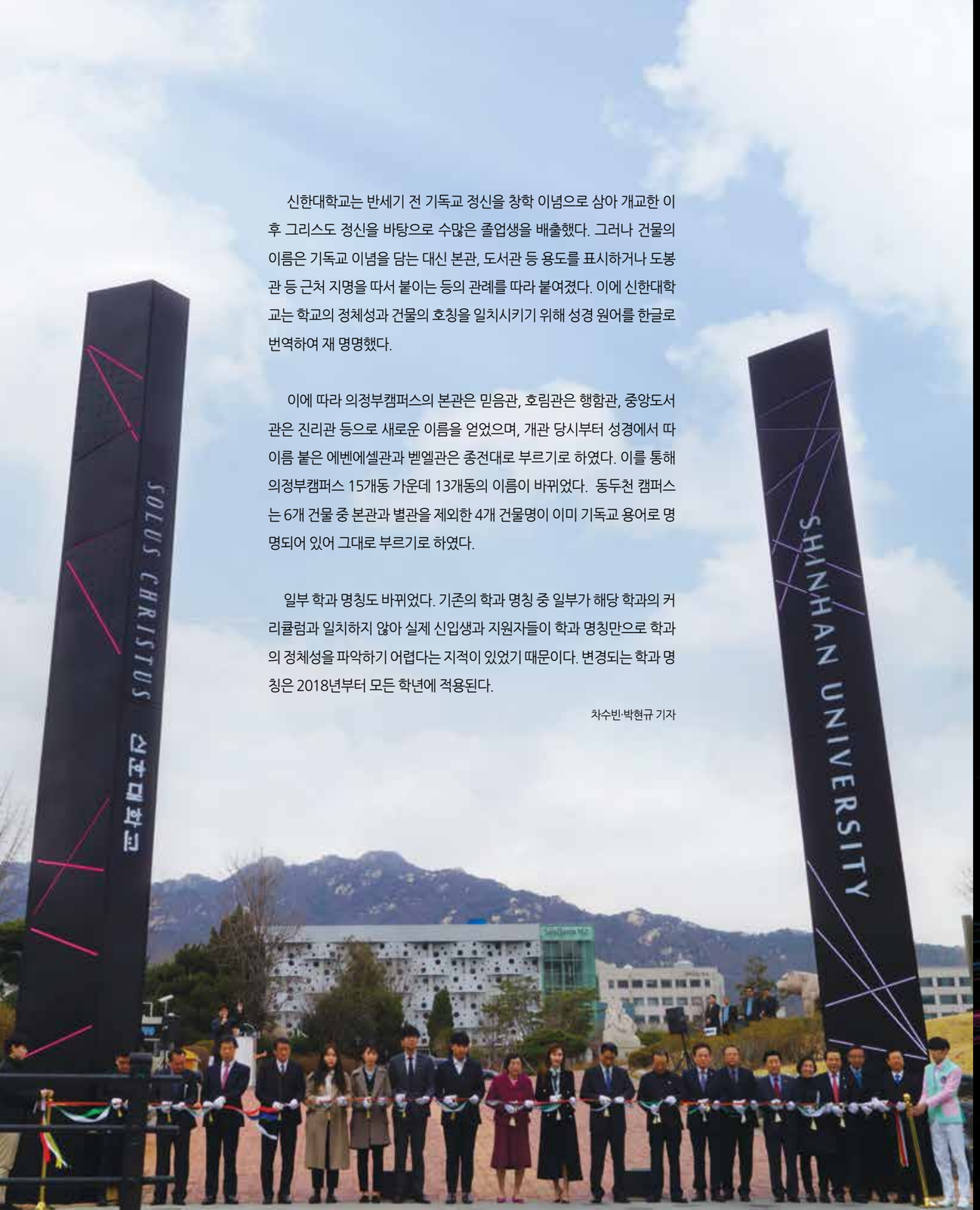
SHINHAN UNIVERSITY

신한대학교가 새로이 문을 열었다. 2018년 첫 종합대학 졸업생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종합대학 완성의 위용을 갖춘 신한대학교는 대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학문의 문' 대학 정문을 신축해 지난 3월 14일 준공 기념식을 겸한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의정부 1캠퍼스 입구에 세워진 이 '신한의 문'은 높이 12m의 사각형 지주 형태로 디자인 되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검은 몸체에 LED로 포인트를 주어 야간에도 빛을 내게 설계되었다. '창의와 유니크'를 디자인 콘셉트로 삼아 건축된 '신한의 문'은 학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신한대 구성원을 상징하는 4개의 서로 다른 면을 빛으로 이루어진 점과 선으로 연결함으로써 그들의 열정과 노력, 능력 등이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이 빛이 이어져 12m의 높이에 이르는 모습은 구성원의 열정으로 신한대학이 발전하며 그 위상이 높아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한의 문'을 이루는 두 기둥 중 하나에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이라는 뜻인 'Soli Deo Gloria' 라는 문구가, 다른 기둥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의 'Solus Christus' 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신한대학교의 새 단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건물에게도 옷이 있다. 옷은 때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옷을 보고 상대방의 직업이나 성격, 취향 등을 판단하곤 한다. 디자인이 건물의 몸이라면 이름은 건물의 옷이다. 사람들은 이름을 보고 건물의 역할과 기능을 판단한다. 신한대학교가 건물 및 학과 명칭을 바꾼 것은 이 때문이다.



신한대학교는 반세기 전 기독교 정신을 창학 이념으로 삼아 개교한 이후 그리스도 정신을 바탕으로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건물의 이름은 기독교 이념을 담는 대신 본관, 도서관 등 용도를 표시하거나 도봉관 등 근처 지명을 따서 붙이는 등의 관례를 따라 붙여졌다. 이에 신한대학교는 학교의 정체성과 건물의 호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성경 원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재 명명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캠퍼스의 본관은 믿음관, 호림관은 행함관, 중앙도서관은 진리관 등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었으며, 개관 당시부터 성경에서 따 이름 붙은 에벤에셀관과 벧엘관은 종전대로 부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의정부캠퍼스 15개동 가운데 13개동의 이름이 바뀌었다. 동두천 캠퍼스는 6개 건물 중 본관과 별관을 제외한 4개 건물명이 이미 기독교 용어로 명명되어 있어 그대로 부르기로 하였다.

일부 학과 명칭도 바뀌었다. 기존의 학과 명칭 중 일부가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과 일치하지 않아 실제 신입생과 지원자들이 학과 명칭만으로 학과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변경되는 학과 명칭은 2018년부터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차수빈·박현규 기자

2018 의정부캠퍼스 건물명

변경 전 건물명	변경 후 건물명	뜻
본관	믿음관 (Sola Fide)	오직 믿음
호림관	행함관 (Sola Opera)	오직 햄함으로
도봉관	은혜관 (Sola Gratia)	오직 은혜
중앙도서관	진리관 [중앙도서관] (Sola Veritas)	오직 진리
강의동	말씀관 (Sola Scriptura)	오직 말씀
공학관	기도관 (Sola Oratio)	오직 기도로만
인수관	빛과소금관 (Sal, et lux)	빛과 소금
국제관	시온관 (Zion)	거룩한 산, 다윗성이 있던 산
산학관	모리아관 (Moriah)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한 산
국제교류원	광야관 (Midbar)	광야
실습관	변혁관 (Renovare)	회복하다, 새롭게 함
행복기숙사	카르멜1관 (Carmel1)	갈멜산
베다니집	카르멜2관 (Carmel2)	갈멜산
에벤에셀관	에벤에셀관 (Ebenezer)	도움의 돌
벧엘관	벧엘관(Bethe)	야곱이 천국의 계단을 꿈꾼 곳

2018 변경된 학과명

소속	변경 전 학과명	변경 후 학과명
사회과학대학	공법행정학과	공공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언론학과	미디어언론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신한대 '명예의 전당' 현판

학교발전 공헌 개인 • 단체 404명 헌액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추가 계획"

신한대학교에 발전기금을 희사한 사람들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이 마련됐다. 신한대학교는 5월 25일 1캠퍼스 믿음관(Sola Fide)에서 명예의 전당 현판식을 갖고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기렸다.

믿음관 1층 현관 로비 오른쪽 벽면에 가로 7m35cm 세로 3m 크기로 설치된 현판에는 발전기금을 기증한 404명(단체 • 회사 포함)의 이름이 올랐다. 현판 왼쪽에는 별도로 멀티스크린을 설치해 이름과 단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사람과 단체는 1억 원 이상을 기증한 kb국민은행 도봉지점, 5천 만 원 이상을 기증한 김병옥 총장 외 2명, 1천 만 원 이상을 기증한 진학사 외 61명, 5백만 원 이상 55명, 1백만 원 이상 281명이다. 404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증한 사람들이다.

학교 관계자는 "명예의 전당은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현장중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신한대학교가 후학양성과 대학발전에 이바지 한 개인과 단체, 기업을 예우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히고 "해마다 6월 12월 두 차례 개인과 단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김병옥 총장을 비롯한 처장, 학장단 및 학생대표, 외부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여기 현판에 새겨진 분들의 이름은 신한대학교가 기억해야 할 기록으로써 소중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신한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남을 이름이며 이 분들의 명예는 개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신한대학교의 명예"라고 밝히고 "종합대학 승격 이후 향후 100년을 향해 전진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발전의 원동력이자 학생들과의 소통의 장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대학교 명예의 전당 디자인 컨셉

기존의 기부자 명예의 전당 디자인은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기록위주의 기능만 강조되어 자칫 지루하고 가독성과 가시성이 떨어져 명예의 전당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대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 신한대학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시설물, 설치물이 아닌 하나의 조형작품, 즉 예술작품으로 기획 되었습니다. 전체의 형태는 네덜란드의 작가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었으며 한명, 한명의 기부자들의 명패는 전체 조형디자인요소의 일부가 되어 전체형태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화합과 발전"의 컨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되면 형태와 디자인이 고정되는 모양이 아니라 기부자의 숫자,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태와 색상이 바뀌는 가변적 형태로 변해 항상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매년 바뀌는 유행색에 민감하지 않은 회색 계열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명예의 전당이 갖추어야 할 권위감,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시·정시 전형 높은 경쟁률 뚫고 새내기 1,600여 명 입학 2014년 종합대학 승격 후 4년간 편제 완성 첫 졸업생 배출!

신한대학교는 지난 2월23일 은혜관에서 종합대학 승격 후 영광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데 이어 3월 2일에는 의정부캠퍼스 은혜관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7개 단과대학 21개 학과 1,600여 명의 신한 새내기들은 수시·정시 전형에서 우수한 등급을 기록한 학생들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신한대학교가 2014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후 첫 졸업생을 배출한 뒤 맞이하는 첫 입학생이라는 점에서 신한대의 미래발전 전략인 'New-versity' 구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ew-versity'는 'University'를 넘어선 새로운 대학을 추구한다는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담은 것으로, 기존의 대학들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려는 전략이다.

신한대학교 제1회 졸업식 제5회 입학식

입학식에는 신흥학원 설립자 강신경 목사, 김병옥 전 총장, 안현수 이사장, 김관목 · 김종호 · 이인규 이사, 유보선 행정부총장, 이하나 비서실장, 학처장 및 원장, 석좌교수, 부설연구원장 등 학교 관계자와 오세창 전 동두천 시장, 장효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노승종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해 신입생들이 '신한인'으로 출발하는 것을 축하했다. 1부 입학식, 2부 축하공연으로 나눠 진행된 입학식은 김용섭 목사의 성경복독으로 시작해 김병옥 전 총장의 환영사와 우수학생 장학증서 전달식,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의 축사, 내·외빈의 축사, 동영상 상영,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행사에서는 공연예술학과 이현숙 교수와 윤화재인 교수의 축가와 26사단 군악대, 공연예술학과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떠나는 이들에게 '성공'을 기원하는 박수를, '신한의 문'을 들어선 새내기들에게는 '환영'의 박수를

맞이하는 기쁨

전체수석을 차지한 식품조리과학부 김호경 학생이 김병옥 전 총장으로부터 장학증서를 받아 이목이 집중되었다. 김호경 학생은 50대의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 학생들을 제치고 수석의 자리에 오른 만학도로서, 비록 배움의 시작은 늦었으나 그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큰 박수를 받았다.

김병옥 전 총장은 환영사에서 "신한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삼아 반세기 동안 6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현장중심 교육의 명문사학"이라고 강조하고 "4년 전 인성교육, 전문인교육, 실용교육을 교육의 뼈대로 삼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융·복합 교육으로 학문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신한의 새내기가 된 이들에게 "도전하라, 자신을 발견하라, 단순히 지식을 쌓기보단 이를 실천하라,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키워라, 봉사하라"는 다섯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입학한 신입생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는 취업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 2월23일 은혜관에서 열린 종합대학 첫 졸업식은 비록 헤어지는 아쉬운 자리였지만 종합대학의 완성과 그 위상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영예의 자리이기도 했다. 졸업생 1,507명 가운데 1,456명은 학사학위를, 51명은 석사학위를 취득해 '신한의 문'을 뒤로 하고 '사회의 문'으로 들어섰다. 이들이 획득한 '1회 졸업생' 타이틀은 신한대학교의 영원한 상징이자 후배들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선배 로 남았다. 졸업식은 김용섭 목사의 성경봉독, 이명호 학생지원처장의 학사보고, 김병옥 총장님의 졸업식사/학위수여, 안현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에게는 수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총장상은 방사선학과 김성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강중한 학생이 수상했으며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백지현, 보건관리학과 보건관리전공 이옥 학생은 설립자상을, 공연예술학과 정현민 학생은 학과 공로상을, 상담 및 심리치료전공 강경신 학생은 대학원 논문상을 각각 받았다.

경기도지사상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영진 학생, 의정부시장상은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박지섭 학생과 사회복지학과 김예은 학생, 동두천시장상은 국제어학과 민승기 학생, 총동문회장상은 식품영양전공 오지은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부분의 학과 졸업생들은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높은 취업 성공률을 보여 신한대학이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종합대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신한대학교의 긍지를 드높였다. 보건과학대학의 국가고시 합격률은 모두 평균 합격률을 넘었다. 공연예술학과는 관련 업계로부터 학생들이 꿈을 키우기 좋은 터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신한대학교가 배움의 터전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졸업생들의 앞길이 영원한 꽃길이기를 교직원과 후배들은 기원한다.

차수빈 기자

우리는 신한인이다

신한 새내기
'우리는 하나'

2018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강·학과 프로그램으로 소속감 확인, 자아 발견 기회
다양한 프로그램 즐기며 92.5% 만족감 나타내

신한대학교가 2018학년도 '신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강원도 홍천군 대명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대명리조트에서 신입생들은 처음 보는 동기들과 친목을 도모했고, 4년 동안 가르침을 받을 교수들과 캠퍼스 생활을 도울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신한인'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새내기들은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지식의 문'으로 들어서며 '우리는 하나'를 다짐했다.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는 1,350명의 신입생을 포함해 유보선 부총장, 처장단, 교직원, 학생간부 등 1,550명이 함께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큰 목표는 START Project 실천과제 중 신한대학교의 대학생활 적응을 통한 학업의욕 향상과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도 탈락 방지 및 취업률 향상, 국가와 인류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Shinhan 國人)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학교 측은 오리엔테이션이 끝난뒤 참가 학생 1,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정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9%, 숙소 및 시설만족도는 90%, 강의시간 및 내용은 93%, 안전관리 98% 등 평균 만족도가 92.5%로 나타났다.

미디어언론학과 장혜린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기 전 "대학교에 오기전에는 교수님과 선배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이후 그녀의 생각은 180도 바뀌어 "교수님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매우 유쾌했고, 선배는 군기나 잡는 무서운 사람일 것 같았지만 굉장히 친절했다"고 말했다. 임상병리학과 이동현 학생은 "신한대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하며 신한대의 비전 있는 커리큘럼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명사특강을 들은 치기공학과 강태구 학생은 "스무 살 성인이 됐다는 것이 아직 믿기지는 않지만, 이제 교복을 입은 학생을 벗어나 성인에 어울리는 옷을 입을 것"이라며 "신한대학교를 내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신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김치현 기자

김병옥 총장 환영사

싱그러운 봄날처럼 풋풋한 여러분을 마주하니 한편으로 마음 든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한대학교의 밝은 앞날을 보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신한인'의 영예를 안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신한캠퍼스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생활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대학생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여러분의 꿈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학시계'는 이 시각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당신은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간의 귀중함을 마음에 새겨 값진 대학생활의 출발점으로 삼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대학생활 4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출발점으로 삼아 캠퍼스 생활이 자신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의 기본원칙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지는 자세가 대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힘과 자세를 이번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신한대학교는 반세기 동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수도권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한 대학입니다. 지난해를 끝으로 4년 간 종합대학 편제를 완성한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입학을 계기로 한반도의 중심대학을 목표로 삼아 다시 한 번 도약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핵심에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대학', '기적을 창출하는 미래대학' 전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New-versity'라는 발전전략에 따라 특화된 교육으로 창조와 전문성을 갖춘 '신(信)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 같은 미래전략이 성공하면 신한대학교는 2020년에 대한민국 20대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New-versity'의 주인공 입니다. 대학은 학업과 낭만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머리에는 꿈, 가슴에는 낭만과 야망을 품고 값진 캠퍼스생활을 하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청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54세 만학도(晩學徒) 김호경씨
식품조리과학부 수석입학

신한대학교 2018학년도에는 경사가 겹쳤다. 4년제 종합대학 체제 완성 후 첫 신입생을 맞은 데다 신입생 가운데 '54살 신입생'이 아들 딸 또래의 20대 청춘을 제치고 전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영광의 주인공은 식품조리과학부에 입학한 김호경 학생. 김호경 학생은 학생부 우수전형에 지원해 환산점수 1,000점 만점에 995점을 받아 8대1 경쟁률을 보인 식품조리과학부에서 수석은 물론 4개 계열 7개 단과대학 21개 학과 입학생 1,600명 가운데 최우수 성적으로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인터뷰를 위해 망월사역에서 만난 50대의 김호경 학생이 요즘 젊은이처럼 점퍼에 모자를 쓰고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은 영락없는 대학 새내기였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40년이 걸렸어요. 탑 쌓기 같은 인생이었죠. 인생의 페이지를 쭉 훑다보니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빠져있었어요. 고교시절 대학에 가기 위해 직장 생활과 공부를 병행했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대학진학의 꿈도 포기하게 되었죠."

지난 힘들었던 세월을 회상하는 듯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꺼지지 않았다. 1981년 경민비지니스고를 졸업한 그녀는 4남매를 결혼시키고 손자까지 보고서야 '결정적인 나의 인생의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할까'에 대한 고민의 답으로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주변의 반대는 보이지 않게 있었죠. 자식들은 뭐 하러 뒤늦게 대학에 가려하느냐고 반대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의 뜻을 굽히지 않자 만류하는 대신 응원을 해주어 힘을 더 얻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말리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는 않았다.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운 데다 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큰 딸은 강사, 둘째는 금융계에서 일했었고, 셋째 딸은 연세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막내는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약사이다. 보통사람들의 삶처럼 '김호경 학생'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족이 뿔뿔이 헤어질 수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4살 때 집이 경매를 당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란 끈을 놓지 않았다. "힘들어도 해야 돼, 그래 하자." 그녀는 힘든 순간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였다. 김호경 학생은 입학식에서 전체 수석상을 받을 때를 "내 인생의 획을 긋는 명장면"으로 회상했다. "감회가 깊었고 자긍심이 샘솟았다"고 밝힌 그녀는 "운이 좋아 받은 상이지, 학생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겸손해 했다.

그녀의 우선 목표는 졸업이다. 4년 동안 젊은 캠퍼스 동료들과 경쟁하며 실력을 쌓아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했다. 신입생 학우들과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영어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녀는 주부의 경험을 살려 전공분야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대현 기자

치위생사·치기공사 100%, 임상병리사 97%, 방사선 96% 기록! 타 대학 질시 한 몸에!

신한대학교의 특장 가운데 하나는 보건계열이다. 반세기 전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경기북부는 헐벗고 굶주린 곳이었다. 거리마다 고아가 넘쳐났고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전쟁미망인은 자식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었다. 그보다 더 큰 환란은 질병이었다.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치료의 기회는 없다시피 했다. 병마와 싸워야 했던 사람들에게 치료는 생존 그 자체였다. 신한대학교가 동두천에 보건계열의 대학을 설립한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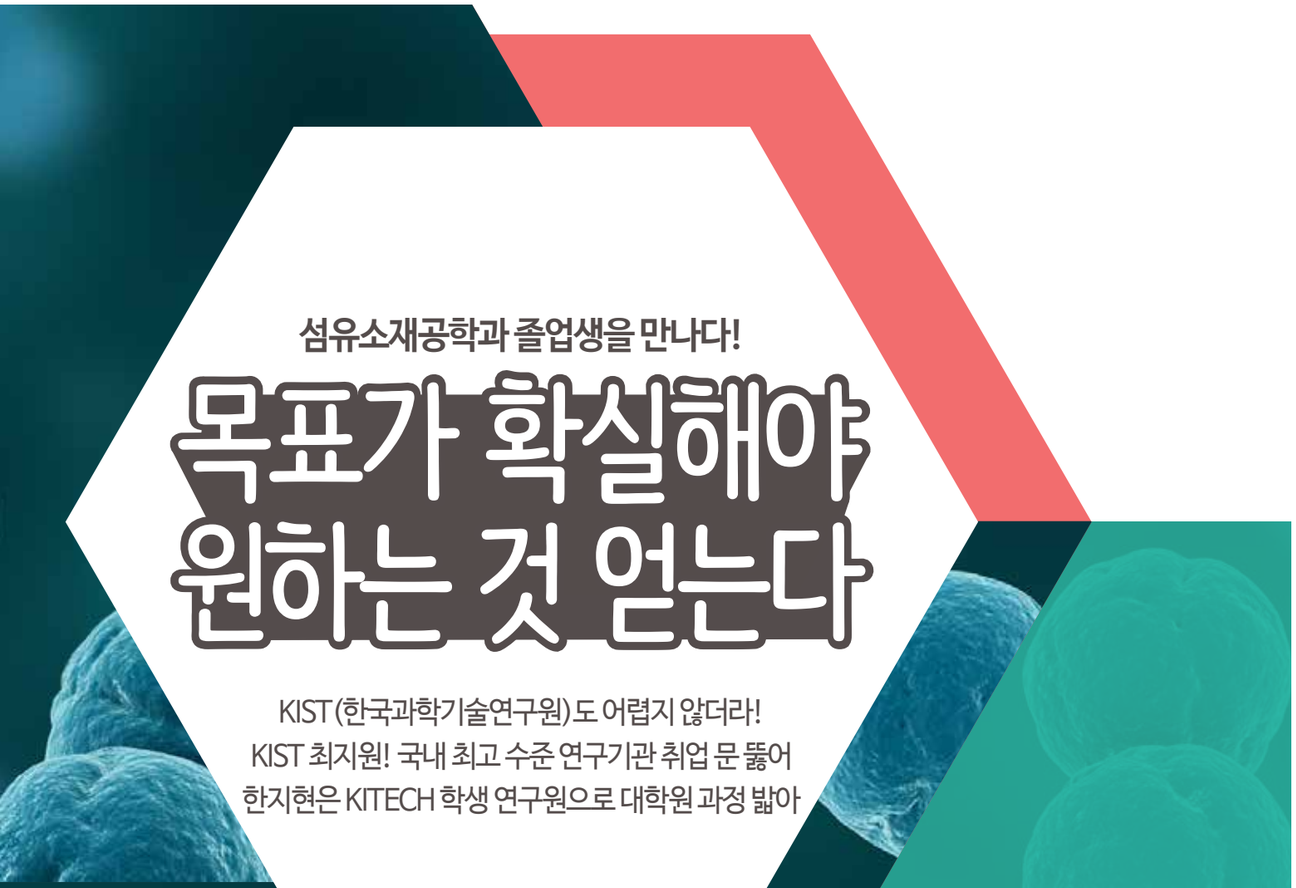
반세기에 걸친 보건계열 교육으로 신한대학은 경기북부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보건계열 교육의 허브로 떠올랐다.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으로 보건관련 핵심교육기관으로 부상한 것이다. 보건의료국가시험에서 올해 합격률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4년 전 신한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보건자격의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의료국가시험에서 기록한 올해 합격률이 이를 증명한다.

치위생학과는 올해 1월5일 실시된 제45회 치과위생사자격 시험에서 응시자 56명중 56명이 합격해 '전원응시 전원합격'의 대기록을 수립했다. 제45회 치과위생사 자격시험의 전국 합격률은 83.2%였다. 치기공학과도 응시 학생 전원이 합격해 신한대 보건대학의 위상을 확인시켰다. 치기공학과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제 45회 치과기공사 자격시험에서 68명이 응시해 100% 합격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전국 합격률 79%를 훨씬 넘는 수치이다.

신한대학교 보건계열학과의 성과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지난해 12월23일 실시된 제45회 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서 124명 중 97%인 120명이 합격해 전국 평균 83.8%를 훨씬 웃돌아 타 대학의 질시를 한 몸에 받았다. 방사선학과도 올해 1월에 실시된 제45회 방사선사 자격시험에서 58명이 응시해 96.2%(56명)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합격률 78.4%를 훨씬 앞지른 수치였다.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안경광학과도 올해 1월 실시된 제30회 안경사 면허시험에서 전국 합격률 74.9%를 훨씬 웃도는 86%의 합격률을 보였다.

김민성 수습기자

학과	응시 시험	합격인원/응시인원	합격률(%)
안경광학과	제30회 안경사	35/41	86%
임상병리학과	제45회 임상병리사	120/124	97%
방사선학과	제45회 방사선사	56/58	96.2%
치기공학과	제45회 치과기공사	68/68	100%
치위생학과	제45회 치위생사	56/56	100%
총합		**335/347**	**96.54%**



섬유소재공학과 졸업생을 만나다!

목표가 확실해야 원하는 것 얻는다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도 어렵지 않더라!
KIST 최지원! 국내 최고 수준 연구기관 취업 문 뚫어
한지현은 KITECH 학생 연구원으로 대학원 과정 밟아

2014년 4년제 종합대학으로 출범해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경기북부의 취업교육의 허브 역할을 해온 섬유소재공학과가 지난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며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결과는 신한대학교가 유능한 교수들을 영입하는 등 학생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데다 종합대학 출범 후 연구하는 대학풍토 조성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취업에 당당히 성공한 학생은 최지원(24) 씨로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이공계 졸업생들이 선망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직장일과 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 한지현(24) 씨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스마트섬유 그룹의 학생연구원으로 들어가 석사과정을 밟게 됐다. 최지원 씨는 KIST 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에 연구직으로 취업에 성공, 신한대에서 연구원 출신 교수가 진행하는 교육으로 새로운 연구원을 육성하는 선순환을 이룸으로써 연구하는 신한대학의 교육이념에도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 – 섬유소재공학과 졸업생 최지원

최지원 씨가 근무하는 연구소는 탄소섬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복합소재 기술연구소이다. 양자 응용복합소재 연구센터,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다기능 구조용 복합소재연구센터로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그가 속한 탄소 융합소재연구센터는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섬유, 나노카본 복합재료, 고분자 기반 기능성 소재, 고분자 수지, 복합재료 재활용, 그래핀 섬유 등을 연구한다.

최지원 씨가 학부시절 심혈을 기울인 것 가운데 하나가 학점관리였다. 그는 "3학년이 되어 내가 취업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니 학점관리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학점이 바닥을 치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 4학점 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목표가 확실해지니 일단 공부가 잘 되기 시작했고, 전공에 대한 학구적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열정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목표가 확실해야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섬유에 관심도, 흥미도 없었던 자신이 전공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배움이 즐거웠던 것은 이 때부터였다고 했다.

그는 3학년 때부터 실험실에서 동기인 한지현과 염색에 대한 실험을 한 경험이 있는데 방학 때까지 실험을 진행해 실험 설계부터 데이터 분석, 포스터 제작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학회를 발판 삼아 4학년 2학기 때는 인턴 기회가 생겨 섬유 분석실에서 인턴생활도 했다. 그래서 그는 진로에 고민이 많은 후배들에게 인턴생활을 추천한다. 학교공부와 달리 실무에서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펙이라는 것이다. 인턴 생활 중 자신이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로를 바꾸기는 했지만 실무 경험을 쌓았다는 점, 학교에서는 다룰 기회가 없던 장비들을 직접 다뤄본 것은 뛰어난 스펙이었다고 했다.

그는 캠퍼스 생활 중 배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고 했다. "학부생활 중 받았던 전공교육은 사회에 나가서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비록 대학원과 연구실 근무를 병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내 배움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와 잦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필수 가운데 필수이라는 것이 최지원 씨의 판단이다. 그는 "아무래도 1기 입학생인 만큼 조언을 구할 선배가 없었고, 그래서 지도교수에게 더 많이 의지했다"며 "나의 경우 진로가 늦게 정해지긴 했지만, 지도교수와 꾸준히 면담하면서 경우의 수를 좁혀나가다 보니 연구원이라는 진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다"는 그는 "안될 거야, 내가 거기를?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해"라며 도전하기를 꺼려해 스스로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고 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연구원을 진로로 설정했다면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그리고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을 꼭 마음에 두고 취업이나, 진학에 도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토익이나 영어공부는 필수항목이라고 했다.

박현규 기자

'협력하는 괴짜들이 미래의 인재상'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한대 PBL (프로젝트중심 교육) 효과 크다

학습자 주도로 문제인식→문제파악→해결안 도출→해결안 평가과정 거쳐

Project Based Learning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상적인 미래 인재상으로 '협력하는 괴짜(cooperative geeks)'를 제시하고 있다. '협력하는 괴짜'는 창조성과 협력성을 지닌 존재로서, 여기서 창조성은 기존의 것과 다르게 보는 능력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가진 지식의 습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협력하는 괴짜'를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 스펙형 인간이 아닌 집단 창조성을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그 답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프로젝트 중심 교육(PBL, Project Based Learning)'이다.

'프로젝트 중심 교육'은 종전의 강의법을 지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학습모형은 1950년대 중반 캐나다의 한 의과대학에서 개발되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가 되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지식뿐만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가설검토를 위한 자료수집, 자료 분석, 자료종합, 최종진단과 처방 제시와 같은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학습자 스스로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PBL의 기본개념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실제 또는 가상의 문제를 다루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수자는 튜터(tutor)의 역할을 하고 학습자는 문제인식→문제파악→해결안 도출→해결안 평가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5~7명의 소그룹이 팀을 이뤄 배울 부분을 스스로 정하고 그룹 내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자료수집, 분석 등을 거쳐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이 강조된다.

학습자는 교수자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움을 만들어간다. 그저 지식을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학습자는 교육의 주체가 되어 복잡한 질문과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여 지식과 기술을 배워나간다. 바다처럼 넓은 지식의 광장에서 학습자는 모든 것을 배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스스로 배움을 통해 세상을 구성해간다.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능력, 심층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이 길러진다.

신한대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PBL 기반 강의를 개설하였다. 신한대가 진행하고 있는 PBL 기반 교과목 중 하나인 미디어언론학과의 기획기사 쓰기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기사거리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팀 별로 취재 상황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학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PBL 수업의 주목적이었다.

이 과목의 PBL 문제내용은 시사주간지 창간기념호에 실을 특집 기획기사 작성이었다. 24명의 학생이 8개의 조를 이루어 참여한 수업은 문제제시, 과제수행 및 점검, 과제 발표 및 평가로 이루어졌다.

수업에 참여한 미디어언론학과 신대현 학생은 "피드백 점검과 수정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실천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팀원들과의 협동으로 이루어진 강의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김소희 학생은 "1차 조사 및 탐사조사, 인터뷰를 진행하며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주도적인 수업 방식을 통해 주체성을 갖고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팀원들이 채워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변유진 학생은 "필요한 자료들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조사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팀원들과 함께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취재 과정에서 기사작성법을 알게 되어 앞으로 기사를 읽을 때 그러한 점도 고려하며 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 할 수 있었다는 점을 PBL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강의를 듣고 필기하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수업의 주체가 되어 참여한다는 점이 기존 교육 방식과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교수만의 평가가 아닌 함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역시 서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꼽혔다. 각 팀의 결과물을 보고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의견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PBL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팀 과제를 기피하던 종전과는 달리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 특징으로 꼽힌다.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PBL 기반 강의를 수강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으며 더 많은 강의가 PBL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꽤 오래전에 등장한 PBL이라는 개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방법론으로 재조명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협력하는 괴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맞히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융합과 협력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결코 혼자서 뛰어난 결과물을 창출할 수 없다. 다르게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괴짜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현대사회가 교육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

김치현 기자, 이송은 기자

일방통행 교육 아닌 소통으로 학습의욕 높여
신입생 대상 캠퍼스생활 스스로 찾도록 도움
동기유발학기제 대신 올해 첫 도입 새로운 師弟(사제) 관계 형성 강의

전통적인 유교교육이 교육을 지배하던 조선시대의 사제관(師弟觀)을 나타내는 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였다. 스승은 하늘과 같은 존재이며 스승의 말은 절대적인 진리와 같았다. 그 시대의 교육방식은 일방통행형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제관을 지금의 대학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수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저 교수에게 지식을 배우기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대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교육패턴은 달라지고 있다.

교수와 학생화합의 장 "사제동행세미나"
사제동행은 FYE (First-Year Experience)

새로운 교육패턴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다. 일방통행식 교육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신한대학교의 사제동행 세미나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신한대학교의 사제동행 세미나는 변화를 준비하는 전략 중 하나로, 경기 북부의 교육 허브로서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사제동행 세미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동기유발학기제 대신 새로 도입된 필수교양 강의 프로그램이다. 동기유발학기제가 학생들 간의 친목을 중요시 한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 진행한 사제동행 세미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을 중시한 화합의 장 성격이 강하다. 교수와 제자가 함께 가는 사제동행은 기존의 교수와 학생이라는 도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교수마다 각각의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교수와 학생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생들은 학습의욕을 갖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뷰티헬스학과 서수연 교수가 FYE(First-Year Experience)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 강의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동기유발학기제는 학습자가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강의형식 탓에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사제동행 세미나는 고등학교에서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융합적인 사고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제동행 세미나 강의의 최대의 장점이다. 아울러 교수와 학생 사이에 래포(rapport • 서로 믿고 존경하는 감정의 교류)를 형성하고 학생의 학교적응과 학과 전공, 취업 등 캠퍼스생활에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움직이고, 계획을 세우고, 동기들과의 유대감을 깊게 하는 소통의 장으로 작용한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서수연 교수는 "특히 뷰티헬스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직업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 또는 직업의식과 관련된 윤리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사제동행 세미나는 어느 학문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처음에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걱정했지만 매주 사제동행 시간에 자신을 믿고 따라주어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다른 교수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사제동행을 운영했다. 학기 초에는 각기 다른 강의 시간에 있었던 궁금했던 점을 서로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UP! 학점 UP! 건강콘서트'로 이를 연결했다.

강의를 수강한 뷰티헬스학과 김영주 학생은 "대학교에 입학해 진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교수와의 소통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은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제동행 세미나는 학생도 처음이지만, 교수 역시 처음이다. 서 교수는 "이 교육프로그램이 처음인 만큼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매너 교육이나 신입생들이 공감이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더 좋은 강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아울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신입생 이상의 학생과 복학생, 편입생이 갑진 사제동행 세미나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치현 기자

교수 칼럼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신한인들에게!

스펙 쌓기와 알바에 매몰된 개성과 인성, 창의력
인공지능이 담지 못하는 인간만의 덕목 일깨워 꽃이 존재하도록
하는 '사랑의 나비'가 되라. 인문학에 정답이 있다.

김정훈 공학박사
신한대 전자공학전공 교수·취창업지원처 처장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는 것, 그것을 혁명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과거의 경제공식이나 산업공식도 빠르게 깨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증기기관기반의 1차 산업혁명, 전기에너지기반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인터넷기반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많은 석학들이 지금은 인공지능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과 자율 주행차, 빅 데이터, 가상현실 등의 AI, 사물인터넷과 5G,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모든 세상과의 연결, 생명의 한계에 도전, 그리고 드론, 3D 프린터 등의 미래 산업으로 대표된다.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4차 산업혁명은 최근 최저임금인상과 맞물려 맥도널드 등의 식당에 등장한 무인 계산기, 그리고 2016년 3월 우리를 놀라게 한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써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혁명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T학문을 전공하는 필자는 전공 측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이자 큰 기회로 생각하고 IT학과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며 면학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필자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깊은 의문은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계류가 인류를 대신할 것인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초 지능을 갖게 될 경우 우리 인간의 가치와 생존전력은 과연 무엇인가란 문제이다.

사실, 필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필자가 IT학과 교수이자 취창업지원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치에서 작금의 대학생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산업현장은 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급변하는데 반해,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은 과거보다 어려워진 취업준비를 위해 스펙 쌓기와 아르바이트에 매몰되어 개성과 인성, 그리고 창의력 향상은 우려할 만큼 저조해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신한인들이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가져야할 학습 방향과 전략은 무엇일까? 소위, 학문적 융합과 창의력향상 노력이면 족한 것일까? 그 정답은 얼마 전, 미국 코넬대의 마사폴락 총장이 신문에 인터뷰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인문학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사고방식이해, 다문화의식, 타인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 • 협업하는 능력,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쓰는 능력과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력을 육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능력 중 정말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직관"이라고 하였다. 직관이란 보통 통찰과 함께 쓰이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본질적인 곳까지 깊이 바라보는 능력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정신적 힘과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의 경쟁력은 컴퓨터의 지능과 빅 데이터로 채워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버림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희생과 사랑과 같은 인간 본연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0여 년 전 필자가 대학생 때 읽었던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이 떠오른다. 호랑애벌레와 노랑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이 이유도 모르고 경쟁하며 올라가던 무의미한 기둥에서 내려와 어려운 결단과 노력으로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발전시켜 나비가 된다. 애벌레로서는 할 수 없었던 나비가 되어 날아다님, 그리고 이를 통해 꽃들이 존재하도록 사랑의 씨앗을 날라줄 수 있게 되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이 존재하게 도와주는 희망의 역할을 하게한다는…

그렇다. 우리 학생들도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비전과 가능성을 개발하고 깨워서 스스로 훌륭한 나비들이 되어야한다. 물론 남과 다른 길은 선택하는 용기와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 나비가 될 때까지 꿋꿋이 시간을 버텨야하는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 학생들안에 잠들어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꿈을 실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모습과 보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행복감과 꽃들에게 씨앗을 전해주는 보람 이상으로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힘든 환경에서도 면학에 힘쓰고 있는 우리 신한인들이 자기 안에 내재된 멋진 자아를 발견하고, 전공분야의 전문인으로서 면학하면서 인공지능이 담지 못하는 인간만이 가진 인간의 덕목들, 깊은 사고력, 소통 그리고 협업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의 인재들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골라듣는재미 추창업지원처프로그램

최근 정부는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2018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나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흔히 '취업'이라고 한다면 1학년들에게는 먼 미래같이, 4학년들에게는 조급한 과제같이 느껴진다. 문제는 현재의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화할 것인가이다. 신한대학교는 취·창업문제로 사회와 단절 되다시피 한 '청춘의 고민'을 패키지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창업지원처를 주도로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취·창업과 진로 단계별 경력개발을 위해 학년별로 1단계(1학년), 2단계(2학년), 3단계(3학년), 4단계(4학년)으로 나뉜다.

Step1 진로탐색

1단계는 진로탐색 과정으로 사랑과 봉사를 통한 대학생활 적응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진로 포트폴리오계획,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무 적성파악, 동아리 활동, 교양(외국어, 인문사회)수강, 아르바이트가 있다.

Step2 진로설계

2단계는 진로설계 단계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전공기초 능력을 강화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이다. 세부전략에는 직업(직무)탐색과 진로상담 및 집단상담, 목표 진로 설정, 전공동아리, 공모전 준비, 외국어능력 향상 및 어학연수,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자격증 준비 등이 포함됐다.

Step3 경력개발

3단계는 경력계발 단계이다. 지성과 창의를 통한 전공직무능력을 심화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세부전략에는 목표기업 및 직무설정, 취·창업특강, 취업캠프, 취·창업 교과 및 외부강좌 수강과 국내외 기업 현장 실습, 취·창업 동아리, 교내외 공모전 참여, 외국어 심화, 국내외 기업 인턴십, 기초자격증 취득 및 전공자격증 준비 등이다.

Step4 취업준비

4단계는 마지막 실전취업 준비과정이다. 도전을 통한 실전취업 스킬 강화와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목표기업 분석과 취·창업특강, 취업캠프, 취·창업교과 및 외부강좌 수강과 함께 취업박람회 및 채용설명회에 참가 등이 이 단계에서 진행된다. 취·창업 동아리(스터디)활동과 함께 리크루팅 참여, 입사서류 컨설팅, 면접 컨설팅, 전공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4단계의 세부전략이다.

취·창업지원 전체 프로그램 8단계로 나눠

2018년도 취·창업지원 전체 프로그램은 취업·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교내외 취업 프로그램, 자격증, 동아리, 인턴, 취업 역량강화, 창업 프로그램으로 크게 8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는 19개이다. 이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 지원'과 '학과(부)별 취업특화 프로그램 지원', '신한 Job Ace 양성과정', '취업캠프'이다.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은 학과지정의 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50%부터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자격증은 50%,국가장학금은 100%를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장학금'과도 연관이 있다. 신한대학교의 마일리지 장학금은 교내 행정기관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TOEIC 등 외국어시험 점수를 통해 마일리지를 획득한 후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방식이다. 취·창업지원처의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외국어 점수를 올려 교내 마일리지 점수를 올리고 장학금까지 받는다면 일거양득인 셈이다.

'학과(부)별 취업특화 프로그램 지원'은 취업률 향상을 위해 학과(부)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다. 취·창업지원처는 87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후 그 결과를 적용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취·창업지원처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학과 지도교수의 언급이 가장 영향력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를 처음 적용한 것이 260명의 학생이 참여한 교양 '실전취업특강'이었다. 수업 중 '입사서류클리닉'이라는 취·창업 지원처의 프로그램의 경우 자기 소개서를 쓰는 과제가 주어졌다.

사제동행 세미나는 미래설계·실행능력 기르는데 도움

'학과(부)별 취업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적용한 다른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제동행 세미나'이다. 사제동행 세미나는 교수와 학생 간 긴밀한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성 함양, 대학생활 적응, 학습 능력, 미래 설계, 실행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맞춰졌다. 해당 수업에서 4-5개 학과씩 그룹을 지어 '진로설계 및 포트폴리오'라는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했다. 또한 취·창업지원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신한대 졸업자로 전공 관련 직장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 3회 진행되는 학과별 강연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1회는 신한대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권유했다.

'신한 Job Ace 양성과정'은 직무탐색을 통한 진로설정, 입사서류 완성, 면접 컨설팅 Class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신한 Job Ace 양성과정'은 하계, 동계 방학 중 운영되며 전 학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첫 날에는 강점과 약점, MBTI 성격유형 검사, 둘째 날에는 워크넷을 통해 직업의 종류와 직무를 알아본 후 관심이 가는 직업을 선정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날에는 워크넷에 있는 직업 심리검사 중 직업 선호도 검사와 가치관 검사를 실시하여 추천할 만한 직업 알아보기, 마지막 날에는 자신이 회사에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거친다.

학년별 4단계 취업준비 과정으로 '취업의 고민' 해결 주목 끌어
자신을 파악하고 세부전략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인기몰이

"몰랐던 것 알 수 있었다"

글로벌관광경영학과 17학번 한아람 학생은 "처음에는 진학을 했지만 뚜렷한 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고민이었다. 그러다보니 목표의식도 자연스레 떨어지고, 진로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 나갈지 몰랐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다가 잡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한 달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본다고 해서 진로탐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먼저 나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어떤 것을 잘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몰랐던 것마저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취업캠프'는 입사서류 완성 및 모의 면접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3~4학년이 대상이다. '취업캠프'에서는 역량 중심 입사지원서 작성법과 모의면접, 1분 PR시간 이루어진다.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한 전자공학전공 15학번 김지수 학생은 "취업캠프를 통해 모의면접을 2번 봤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점을 알고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였다."며 "모의면접 때 강사가 학생들에게 한 명씩 피드백을 해주었고 면접 보는 자세, 인사법, 그리고 면접관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등 많은 것들을 알려주어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면접 이미지 메이킹 및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이 너무 짧아 프로그램을 2박 3일로 늘려 자소서를 같이 써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캠프와 취업관련 특강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한대학교의 취·창업 진로상담은 언제든지 1대1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전체학생(졸업생, 휴학생 포함)이 대상이며 신청은 취·창업 지원처홈페이지(https://job.shinhan.ac.kr/) 로그인 후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은 전화로 신청해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수민 기자

“봉사는 지역에 윤활유, 나에게는 성장의 열매”

몽골에서는 ‘생활봉사’ 캄보디아에서는 ‘보건봉사’ 큰 보람 느껴 / 스펙 쌓기 아닌 자발적 참여가 진정한 봉사 자세 / 신한대 로고스봉사지원단 봉사 연인원 1,800명 / 해외 오지마을 찾고 경기북부 각종 행사 적극참여

봉사는 타인을 섬기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다. 신한대학교의 교육이념 가운데 하나는 섬김을 위한 영성교육을 통해 국가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사명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재상을 구현하는 구심점이 로고스봉사지원단이다. 로고스봉사지원단은 국내외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봉사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2년 9월 신한대학교의 전신인 신흥대학교 시절 단장 1명과 조교 1명으로 시작한 로고스봉사지원단에서 봉사에 참여한 연인원은 2017년 기준 1,800여 명에 이른다.

로고스봉사지원단의 단원으로 지금까지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노은비(방사선학과 4년) 학생은 신한대학교의 교과목인 사랑나누기, 재능나누기, 희망나누기를 통해 봉사를 시작한 봉사인이다. 2016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그는 “‘제6회 참! 신한 몽골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로고스봉사지원단의 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행된 ‘제6회 참! 신한 몽골해외봉사활동’은 로고스봉사지원단의 해외봉사활동 중 하나이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7박 10일간 신한대학교 생태생명공학연구소와 셀렝게 만달솜 중하라 3번학교에서 펼쳐진 봉사활동에 그는 46명의 봉사자와 함께 참여했는데 몽골의 환경정화 개선, 아동교육 지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환경정화와 아동교육 지도활동은 사랑의 나무심기 프로그램, 너·나·울 프로그램, 한국동요배우기, 제1회 신한류 동요 Festival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봉사자들은 모두 ‘신 · 나 · 눔’ 번개장터를 운영하고 모두 ‘신 · 나 · 눔’ 박스를 제작하여 기증하는 등 몽골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보탬을 주었다.

노은비 학생은 “다른 봉사활동과는 달리 몽골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몽골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하는 봉사의 중요성을 알았다”며 특히 봉사활동의 보람과 봉사자들 간의 유대감이 그가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든 계기였다고 밝혔다.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제7회 참! 신한 캄보디아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이었다. 올해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8일 동안 진행된 ‘제7회 참! 신한 캄보디아 해외 의료 봉사활동’ 은 40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해외봉사활동이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캄퐁참 지역 차 카르 르우 지구에서 의료봉사 및 환경정화 개선활동, 아동교육지도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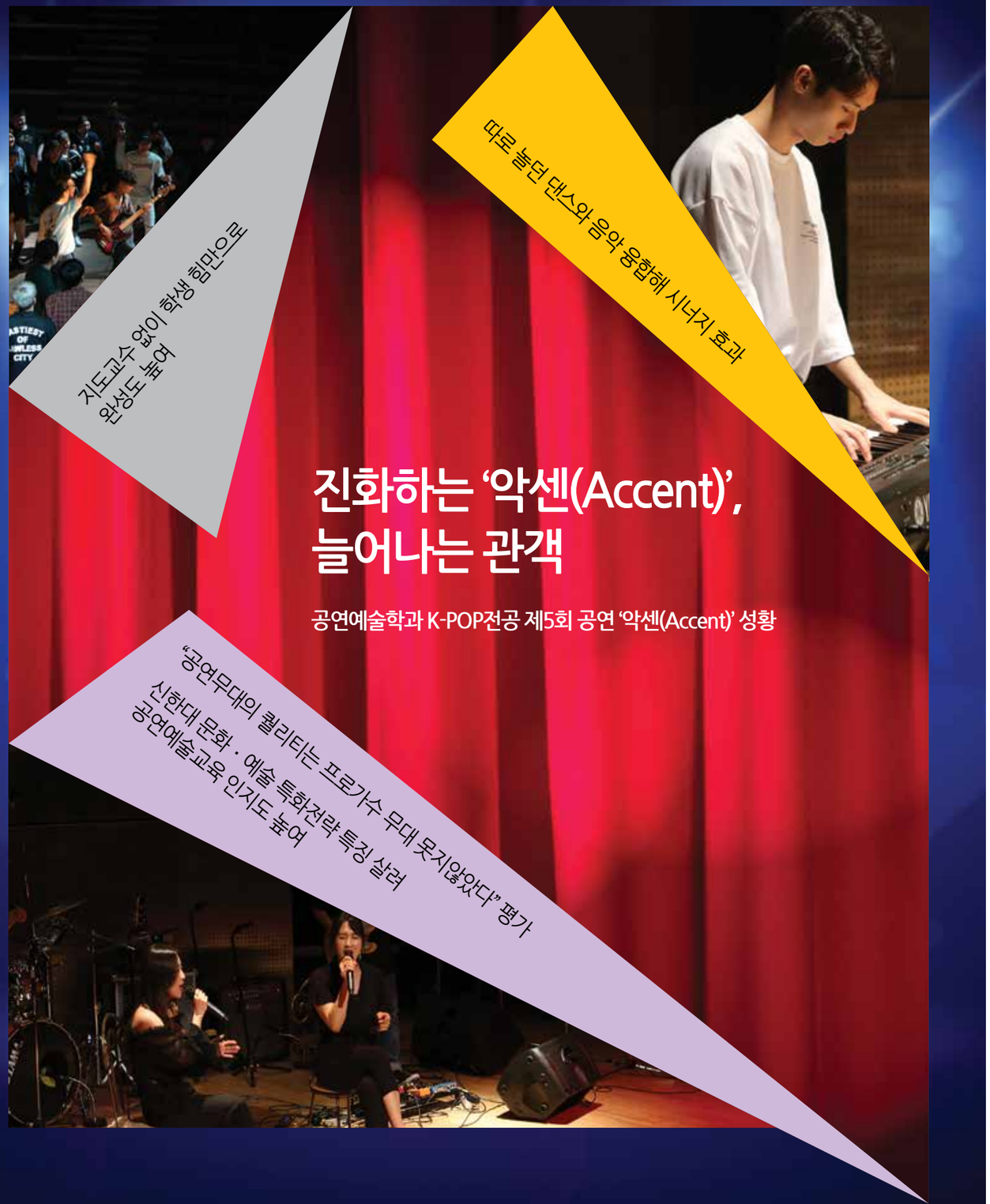
그는 로고스봉사지원단에서 매년 봉사활동을 가는 몽골과는 달리 캄보디아는 처음 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전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기는 했으나 “보건계열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보건봉사였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더운 날씨도 힘들었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해 힘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해외봉사를 통해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는 함께 하는 봉사활동이기에 힘들다는 사실을 내색하지 않고 서로 배려해주는 것이 봉사자들 간의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은비 학생은 로고스봉사지원단이 펼치는 국내봉사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행사 및 축제 봉사 지원, 나눔봉사 활동, 군부대 위문공연, 재능기부봉사 활동을 통해 “나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국내봉사활동은 지난해 5월 5일 진행된 ‘의정부 가족문화대축제’였다. 38명의 봉사단원이 참여한 이 봉사에서 그는 페이스페인팅을 맡았는데 “처음 경험하는 페이스페인팅이어서 사전 교육을 받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노은비 학생은 “물질적인 것보다 재능을 나누는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는 봉사활동의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밝히고 봉사활동의 참다운 의미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간 채우기가 아닌 함께 발전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했다. 봉사는 학생들에게 스펙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스펙 쌓기만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봉사의 참 뜻이라고 하기 어렵다. 참다운 봉사의 바탕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인 만큼 뿌듯함이 따르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봉사참여를 통해 고통과 인내는 지역사회를 더 풍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봉사자 자신에게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이송은 기자



공연예술학과 K-POP 전공 학생들이 기획한 '악센(Accent)' 공연이 회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지도교수의 지도 없이도 공연의 질과 완성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프로 가수들의 공연과 비교해도 될 만큼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종합대학 출범과 함께 문화 · 예술분야 특화전략을 펴고 있는 신한대학교 입장에서 학생 중심의 공연예술교육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학교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공연예술가를 꿈꾸는 신한대 지망 학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16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지하 원형극장에서 열린 다섯 번 째 '악센(Accent)' 공연은 신한대학교의 공연예술분야 특화전략에 맞는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다. 이날 무대는 공연예술학과 K-POP 전공 학생들이 지도교수들의 도움 없이 학생들의 힘만으로 직접 연출하는 '학생무대'를 꾸며 사정을 알게 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또 공연 횟수가 거듭할수록 경험이 쌓인 선배들의 경험과 배우려는 후배들의 열정이 결합해 무대의 퀄리티는 프로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악센(Accent)'이 선보인 공연 레퍼토리는 연주곡으로 New one chorgeography, 뿜뿜, Put it in a love song, 락킹 페페리나, Wings, 일일 크루, Sorry not sorry, Woman, New one, 멋진 헛간, MER-CY, 힙합을 결합한 채치 한나, 아빠처럼, 그리고 1학년 댄스 단체 공연으로 FAME, 그대네요, UPTOWN FUNK 등 18개의 곡이었다.

곡을 연주하고 부른 학생들의 춤과 노래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모아 노력한 흔적이 배어 있었다. 학생들은 댄스무대의 경우 학교 시설 이용이 야간에는 어려워 외부 공간을 빌려 연습했고, 밴드무대의 경우 팀당 일주일에 2시간씩 합주 시간을 잡고 별도로 개인 연습을 계속해야 했다. 학생들은 무대의 완성도를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지난 두 달 동안 사실상 쉴 틈이 없었다.

이번 공연의 또 다른 특징은 댄스와 음악을 융합해 시너지를 높였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같은 K-POP 전공이라도 음악은 솔로와 듀엣으로 나눠 노래를 부르는 경향이 있었고, 댄스는 노래가 전혀 없이 오로지 춤만 추어 댄스와 음악이 서로 벽을 쌓은 듯 했으나 18학번 새내기들이 입학하면서 댄스와 음악을 결합한 색다른 조합으로 연출을 시도한 것이다. 공연예술학과 학회장 장재호 학생은 "이 같은 새로운 시도는 화합의 측면에서 공연예술학과 K-POP 전공 학생들만의 특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이번 공연을 통해 악센(Accent)의 무대는 더욱 큰 무대를 향해 노력하는 동료들에게 성장을 돕는 발판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악센(Accent)'에 참여했을 때는 별다른 특징 없이 공연이 진행되고 관객들도 거의 없었다."고 했다. 관객이 없는 공연은 공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장 회장은 '악센(Accent)'의 성격과 특징, 공연내용을 재학생들에게 적극 알린 결과 관객 수가 처음 20~30명에서 12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학생관객들도 '악센(Accent)' 공연이 계속될 경우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즐기는 축제의 하나로 자리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치현 기자

2018 신한류 K-POP 뮤직 페스티벌

영예의 대상 신한대 '오매불망' 팀 수상

아침부터 내린 비가 그친 것은 축제를 축하하기 위함이었을까. 5월 18일에 개최된 신한류 K-POP 뮤직 페스티벌은 바로 전날까지 이어지던 무더위는 온데간데없이 선선한 날씨 속에서 성공리에 진행되었다. 비록 비가 내렸음을 기억하는 하늘은 회색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지만, 국내 • 외 21팀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의 음악은 '각양각색'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각자 강렬한 개성을 뽐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페스티발 현장은 해가 지며 금세 쌀쌀해졌지만, 뒤늦게 찾아온 추위는 참가자들의 열정을 얼리지 못했다. 관객들 역시 구름을 찢을 듯 높은 함성으로 이들의 열정에 답했다. 참가팀이 다양한 덕에 이어지는 두 곡의 분위기가 상반된 경우도 많았지만, 관객들은 각각 다른 감정과 열정으로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참가자들 중에도 특히 주목받는 이들이 있었다. 외국인 참가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사람들이 흔히 지니는 편견인 '외국인이 부른 K-POP(Korea POP Music)은 한국인이 부른 것 만 못하다'는 인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들은 유창한 한국어 발음을 뽐내며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다. 일부 참가자는 한국인과 다를 바 없는 발음을 보여주어 관객들로부터 감탄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K-POP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콘테스트에서 승리하여 개인 음반 발매의 기회를 거머쥔 팀은 바로 4인 혼성 팀인 '오매불망'이었다. 신한대학교 학생 4명으로 구성된 팀인 '오매불망'은 가수 김현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달의 몰락'을 젊은 감성으로 새로이 해석하여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리더인 이상화씨는 인터뷰에서 '정말 꿈만 같은 일이 펼쳐져서 너무나도 기쁘다. 내년에도 신한대학교 후배들이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매불망' 팀은 자신들의 특징이자 강점이 바로 다인 팀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남녀 혼성으로 이루어진 파워풀한 보컬을 테마로 잡고 연습한 것이 적중했다고 생각한다. 연습 도중 찾아왔던 슬럼프 역시 팀워크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오매불망' 팀은, 앞으로 있을 참가자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냐는 질문에 "대중성 있는 노래에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결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POP 뮤직 페스티벌은 신한대학교가 매년 개최하는 가창력 경진 콘테스트로서, 특히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인 7개 국가에서 참가하여 '이름만 국제 대회'가 아님을 증명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달의 몰락]을 부른 '오매불망'(신한대학교)팀이 금상을, [365 Fresh - Really Really(메들리)]를 부른 'Really Fresh'(동아방송예술대)팀이 금상을, [엄지척 - 사랑의 배터리(메들리)]를 부른 '엄지배터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팀이 은상을, [인연]을 부른 '팜티이엔아'(베트남) 씨가 동상을 각각 차지했다. 특별출연상은 '서쪽하늘'을 부른 몽골의 '오드바야르'가 차지했다.

박현규 기자

2018 신한류 K-POP 뮤직 콘테스트의 우승팀인 '오매불망'.

한 여름에 빛난 신한의 별들

2018년 '라온제'와 신한대체전 성황

2018년은 신한대학교에 '처음'이라는 말이 따라붙는 해이다. 4년제 편제 완성 이후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해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처음'은 총학생회이다. 올해 '최초'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로 선출되는 총학생회는 재학생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면에서 학생들의 구심점이다. 의사결정은 학생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활동은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발전하는데 맞춰져 있다. 지난 5월 의정부 캠퍼스와 동두천 캠퍼스를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장식한 신한축제와 신한체전은 신한대 총학생회(회장 현승환·글로벌통상경영학과 4학년)가 주체가 되어 '처음'으로 내실 있게 진행한 행사였다. 그래서일까, 이틀에 걸쳐 진행된 2018년 신한대학교 축제 '라온제'에 대한 학생들의 열기 역시 이전의 축제에 비해 매우 뜨거웠다.

신한대학교 축제의 새로운 이름인 '라온제'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지닌 순 우리말인 '라온'에서 따온 말. 신한대학교 제1대 총학생회 '이든'은 축제 이름을 공모해 축제에 걸맞는 '즐거움'을 선택했다. '라온제' 자체의 뜻과 더불어 학생들이 축제의 이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크다.

5월 23일 열린 축제 개막식에서 사회는 정동희 부총학생회장, 개최 선서는 현승환 총학생회장이 맡았다. 이명호 학생지원처장은 축사에서 "더 큰 발전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1학기 기말고사 시작전 잠시 재충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축제를 즐겨 달라"고 말하고 "대학 축제는 대학생이기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인 만큼 젊음을 즐기고 발산하며 좋은 캠퍼스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개막식 직후 교내 E-Sports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 부문 결승전이 이어졌다. 이 행사는 아시안게임에서 E-Sports 종목을 공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적인 인기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올해 아시안게임 공식 종목에서 빠진 것을 대신하기라도 하는 듯 학생들은 운동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앞에서 경기에 열중했다. 결승에서 대결한 글로벌관광경영학과와 방사선학과는 치열한 접전 끝에 글로벌관광경영학과가 2대1 승리를 거두었다.

진정한 축제는 달이 뜨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다. 오후 6시부터 교육방송국 S.E.B.S에서 준비한 청춘 가요제가 시작된 것이다. '감동, 그리고 5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7팀이 참가해 주제에 맞춰 숨겨왔던 끼를 아낌없이 발산했다. 참가자들은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무대 앞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그에 호응하며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했다. 뜨거웠던 열기만큼이나 참가자들의 노래실력도 뛰어났고, 결국 심사위원들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는지 1등을 제외한 2, 3등은 공동 수상자로 뽑아야 했다. 1등을 차지한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정현 학생은 가수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를 불러 학생들을 감미로운 분위기에 빠트렸다. 공연을 구경한 지역주민 한수미(18 고등학생) 씨는 "학교축제에서 학생들 실력이야 그게 그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노래가 훨씬 좋았다"고 놀라움을 나타냈다.

'라온제'를 축하하기 위해 초청된 연예인들의 공연은 축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었다. 첫날에는 힙합레이블 'AOMG'에 속한 인기 힙합가수 'ELO'와 '로꼬' 그리고 도발적인 가사와 안무를 자랑하는 가수 '현아'가 출현하였고, 24일에는 힙합듀오 '다이나믹 듀오'와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가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대운동장에서 열린 체전 결승 종목에서 '신한의 또 다른 힘'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경기는 구기 종목(축구, 농구, 피구, 발야구)과 단체 종목(줄다리기, 미션 계주, 단체 줄넘기) 경기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평소 강의실에 앉아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선수들을 격려하는 학과별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특히 체전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줄다리기의 경우 신경전과 응원은 구기 종목 못지않게 치열했다. 그 중에서도 총학생회와 교직원이 참가한 이벤트 경기는 학생과 교직원의 차이를 넘어 '화합의 경쟁'이었다.

E-SPORTS 분야에선 글로벌 관광경영학과가 총 4개 종목(LOL,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스타크래프트)중 2개 종목(LOL, 카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해당 부문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구기 종목에서는 공연예술학과(농구), 치기공학과(피구, 발야구), 글로벌 통상 경영학과(축구)가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 종목에서는 세 종목 모두 치기공학과가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치기공학과는 이날 진행된 총 7개 종목의 경기 중 5개의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당당히 종합우승을 거두며 오전에 반환했던 우승기를 다시 가져갔다. 치기공학과를 대표한 서광진 학생은 "학과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우승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학과 전체에게 종합우승의 영광을 돌렸다.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기획하고 개최했다는 점에서 '자율축제'이자 '스스로 즐거움을 창조하는 축제' 였다. 총학생회는 '라온제' 를 위하여 축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 이전까지의 축제에 비해 기간도, 규모도 2배 이상 커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준비위원회가 구성한 학생 봉사자들의 도움이 컸다. 각 학과와 동아리별 부스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축제 기간 직전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대학교 내 주류 판매 금지' 공문 때문에 급히 계획을 수정해야 했던 타 대학 축제와는 사뭇 달랐다. 이는 신한대학교가 이전부터 기독교 정신에 따라 축제 중 주류 판매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술 대신 학생들이 파는 과일에이드를 마시던 한 학생은 "아쉽긴 하지만, 학교 전통인데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선 자원봉사 학생들은 축제 진행 중 인원 통제는 물론 일손이 필요한 곳 마다 나타나서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 학생들의 눈길을 모았다. 특히 자원봉사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1년에 한 번뿐인 캠퍼스 축제를 즐기는 대신 그늘에서 동료학생들이 마음껏 축제를 즐기도록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 "돈을 받고 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겨우 식비 정도만 지원받고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었다. 축제 준비위원회가 없었다면 축제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총학생회 임원 정우진) 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 캠퍼스를 찾은 지역주민인 최한길(37)씨는 축제준비위원회 멤버를 비롯한 봉사활동 학생들이 "연예인 초청 공연 중에도 공연을 즐기는 대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모습에서 학교와 학생을 위한다는 자세를 읽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축제준비위원회의 열정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시각도 있었다. 어느 교직원은 "학생들이 종합대학의 위상에 걸 맞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자신의 손으로 총학생회를 선출하고, 그 총학생회가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며 자신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교직원은 "이러한 변화는 학교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이 되기를 바라지만, 밤하늘에서 빛난다고 해서 모두 별은 아니다. 스스로 빛나고, 남을 비춰줘야 비로소 별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축제를 빛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던 '라온제'와 '신한대체전'은 그야말로 별들의 축제라고 부를 만 했다.

박현규 김민성 기자

체력은 '신한의 또 다른 힘'

이틀 간 뜨겁게 진행된 '라온제'가 끝나고, 5월 25일 신한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신한대체전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졌다. 학생들은 갈고닦은 실력을 이 날 보여주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투지를 불태웠다. 경기는 구기 종목(축구, 농구, 피구, 발야구)의 결승전과 단체 종목(줄다리기, 미션 계주, 단체 줄넘기). 초여름의 뜨거운 날씨에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지면서 '신한의 또 다른 힘'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종합우승 학과인 치기공학과의 우승기 반환과 페어플레이 선서를 시작으로 각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는 오전에 구기 종목의 결승, 오후에는 단체 종목 경기가 진행되었다. 각 경기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평소 강의실에 앉아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선수들을 격려하는 학과별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특히 체전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줄다리기의 경우 신경전과 응원은 구기 종목 못지않게 치열했다. 그 중에서도 총학생회와 교직원이 참가한 이벤트 경기는 학생과 교직원의 차이를 넘어 '화합의 경쟁'이었다.

오후 5시가 넘어 미션계주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시상식이 열렸다. E-SPORTS 분야에선 글로벌관광경영학과가 총 4개 종목(LOL,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스타크래프트)중 2개 종목(LOL, 카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해당 부문 종합 우승의 영예를 얻었다. 구기 종목에서는 공연예술학과(농구), 치기공학과(피구/발야구), 글로벌통상경영학과(축구)가 각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 종목(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미션계주)에서는 세 종목 모두 치기공학과가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치기공학과는 이 날 진행된 총 7개 종목의 경기 중 5개의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당당히 종합우승을 거두며 오전에 반환했던 우승기를 다시 가져갔다. 치기공학과를 대표한 서광진 학생은 "학과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우승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학과 전체에게 종합우승의 영광을 돌렸다.

김민성 기자

옛 속담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한다. 길을 찾아가는 책의 가치를 설파한 선인들의 금귀도 많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사람과 접촉해서가 아니라 책과 접하였기 때문" (A. 프랜스)이라는 말도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책은 정신의 수목과도 비슷하여 몇 세대씩 이어가며 해마다 새로운 잎사귀를 낳고, 그 잎 하나하나가 기적을 낳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지식의 벽돌 쌓아올리는 중앙도서관

도서 기증 'Book Together'운동 전개 / 교직원·지역 주민 호응.. 도서기증 1만권 돌파

library

책을 통하여 얻는 지식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충격을 줄여주는 방패가 되고, 선인들의 지혜를 쫓아가는 발판이 되며, 뒤따라오는 이들에게도 이정표가 되어 준다. 그래서 "황금을 상자에 가득 채우는 것이 자식에게 경서 한 권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율곡 이이는 세상의 이치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를 위해 莊子는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男兒須讀五車)"고 했다.

지식 쌓기는 성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 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지식의 성'이자 창고이다. 성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다. 그 재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다. 성을 짓기 위해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는 점에서 책은 벽돌과 같다. 학문의 전당으로 불리는 대학이 도서관에 '벽돌쌓기' 투자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대학 도서관의 역사와 규모는 대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징표와도 같기 때문이다. 신한대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승급한 뒤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중앙도서관의 장서 보유량 문제였던 것도 이런 까닭이었다.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종합대학 출범 이후 4년제 수준의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9월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당신의 도서기증, 신한의 미래를 바꿉니다', '잠자고 있는 책을 꿈꾸는 책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중앙도서관 Book Together' 도서기증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증된 도서는 모두 1만965권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 및 출판사 등 외부에서 기증한 도서는 1,024권이다.

중앙도서관은 장서를 기증한 이들에게 1월 11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 교직원 20명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장 수여식을 갖고 총장 표창, 중앙도서관장 명의의 감사패 및 감사장을 주었다. 총장 표창은 중앙도서관 자료 수집 및 납본 기준 1,000권 이상, 중앙도서관장 명의의 감사패는 500~1,000권, 감사장은 100~500권이다. 총장 표창을 받은 사회복지학과 황희숙 교수는 1,360권, 사회복지학과 김향선 교수는 1,003권을 각각 기증했다. 특히 황희숙 교수는 이전에 한 차례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다시 받는 감사패가 한층 더 빛났다.

신한대학교는 이에 앞서 2016년 9월 28일 각 도서 2,000권을 기증한 형설출판사와 1,200권을 기증한 공동체 출판사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같은 해 12월 12일 다수의 장서를 기증한 자동공학과 장형성 교수, 사회복지학과 황희숙 · 조성심 교수, 교양학부 주경희 교수, 인재개발처 학생상담센터 김창희 계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 기증자 명단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증도서의 표지에 기증자의 이름을 명기해 보존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도서 기증을 교수 업적평가의 봉사점수에도 반영하기로 하였다.

박현규 기자

C U L T U R E

'지상의 양식'-앙드레 지드

'지상의 양식'은 194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앙드레 지드의 사상적 자서전이자 청춘에게 보내는 육체와 정신의 해방 찬가다. 지드는'좁은문'전원교향악'과 함께 그의 대표작인 이 책에서 편지형식으로 자신이 느낀 삶의 의미를 제자 나타나엘에게 전하고 있다. 1897년에 발표된 후 한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몇 개의 발췌본으 로 나온데 이어 2001년에 완역 출간되어 출간 121년이 지난 지금도 20대 청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꿈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꿈이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해야한다. 세상 어디에도 잘못된 꿈은 없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꿈을 갖고 있어도 자부심을 갖고 실현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면 꿈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간혹 어떤 사람이 가진 꿈에 대해 평가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의 꿈이 흔한 꿈이면 어떻고, 특이한 꿈이면 어떤가. 지드는 책속에서 "자기가 품었던 꿈과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마다 제각기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라고 말한다. 지드는 꿈의 흔함과 특이함이 아니라, 꿈을 갖는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라고 말한 것이다.

인간의 일생에는 행복과 좌절이 뒤섞여 있다. 그런데 좌절보다 행복을 더 크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해 지드는 "다행이로군" 하고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라고 말하라. 거기에 행복의 커다란 약속이 있다."고 말한다. '다행'이라는 단어는 뜻밖에 일이 잘되어 운이 좋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뜻밖의 상황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우리는 "할 수 없지" 찬스를 쓰는 것이다. 오늘의 실패와 좌절은 "할 수 없지"에 담아 놓고, 내일의 행복을 바라면 된다. 자신에게 행운이나 불운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행운에 대해서는 결코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 결국 지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슬픔과 좌절을 이겨내면 작은 행복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작은 실패에 쉽게 무너지지 말고 소소한 행복부터 실천해 더 큰 행복으로 다가가야 하는 이유이다.

지상의 모든 양식을 예찬한 지드는 자신의 청춘과 일생을 오롯이 '지상의 양식'에서 찾고 기뻐했는데 특히 삶에 대한 예찬을 자연에서 발견한다. 움직이는 자연의 탁월한 묘사와 함께 삶의 의미를 통찰한다. 지드의 접근방식은 매일 딱딱한 책상 앞에 앉아 글자가 빽빽하게 들어찬 책을 보며 공부만 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자연 앞에 나서 무언가를 찾을 것을 요구한다. 그는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모든 감각을 통하여 자연과 생명을 맞아들이라고 말한다. "감각으로 먼저 느껴보지 못한 지식은 무용할 뿐이며, 머리로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비워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지드는 "하늘보다는 땅, 신보다는 인간, 영혼보다는 육체,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나 이성보다는 현실의 여러 모습들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 읽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맨발로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감각으로 먼저 느껴보지 못한 일체의 지식이 내겐 무용할 뿐이다.

지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희열을 향유하면서 삶을 충만하게 살도록 허락했다고 믿는다. 또 행복은 도처에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이를 표현하는 문장들이다.

"공감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이따금 내가 슬픔 시기심 괴로움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각자 인생의 걱정은 각자에게 맡겨두라.

"평화로운 나날보다는, 나타나엘이여. 차라리 비장한 삶을 택하라. 나는 죽어서 잠드는 휴식 이외의 다른 휴식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만족시키지 못한 모든 욕망, 모든 에너지가 사후까지 남아서 나를 괴롭히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모든 행복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어서 그대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거지처럼 순간마다 그대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그대가 꿈꾸던 행복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대의 행복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대의 원칙과 소망에 일치하는 행복만을 인정한다면 그대에게 불행이 있으리라. 나타나엘이여,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색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언제나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선택이 내게는 고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르지 않는 걸 버리는 것으로만 보였다. 시간이 좁다는 것과 시간이 하나의 차원 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끔찍한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내 책을 던져버려라. 이것은 인생과 대면하는 데서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자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 자신의 자세를 찾아라.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하지 말라. 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말하지 말고, 너 자신의 내면 이외의 그 어느 곳에서도 있지 않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리고 초초하게 혹은 참을성을 가지고 너 자신을 결코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라"

"나는 나의 청춘을 어둡게 만든 것을, 현실보다 공상을 더 좋아했던 것을, 삶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다....나는 결과다. 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하나의 기회!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싶다. 나는 내가 왜 사는 가를 알고 싶다."

한규현 기자

"이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까지"
페미니즘 소설

현남 오빠에게

C U L T U R E

요즘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출간된 〈현남 오빠에게〉는 일곱 명의 여성 작가가 페미니즘을 주제로 쓴 일곱 편의 단편 소설집이다.

스무 살 때부터 현남 오빠에게서 느낀 보이지 않는 폭력을 서늘한 이별 편지로 고백하는 조남주 작가의 [현남 오빠에게]가 첫 페미니즘의 포문을 연다. 뒤이어 최은영·김이설 작가의 [당신의 평화]와 [경년(更年)] 등 여섯 편의 소설을 통해 이 시대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울컥 치미는 반가움과 공감을 나눈다. 나아가 이들의 애인 또는 남편, 가족과 친구 등에게 또 다른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남 오빠에게-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해당 작품은 권위적인 태도로 우위를 독점하려는 남성들의 데이트 폭력을 다뤘다.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 처벌 범위를 강화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해자들은 폭력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변명한다.

"다 너를 위한 거야." (29 페이지)

이 말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는 말 같아 보인다. 하지만 글을 다 읽고 나면 얼마나 숨 막히는 말이었지 느끼게 된다.

"당신의 평화 – 현명함의 조건이 희생인가요?"

"그가 말했던 현명한 아내, 현명한 어머니란 무슨 의미였을까. 참고, 참고 또 참는 사람, 남자가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 사람, 남자와 아이들에게 궁극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사람… (중략) 그가 '현명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유진은 거부감을 느꼈다." (51 페이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집안이 남아있다. 일상생활에서, 특히 명절에 그런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건 여자가 할 일이야.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지."

단지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받아 마땅한 고통은 없다. 그들에게 결코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연예계, 예술계, 이제는 정치권까지 '미투 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결국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 터질 문제였다 생각한다. 용기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폐단이 뿌리 뽑히는 그날이 오기를...

신대현 기자

"걱정 말아요 그대"
프랜시스 오고먼

걱정에 대하여

C U L T U R E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을 한다. 연애에 관한 걱정, 학업에 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심지어 남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정작 자신을 챙기기도 급박한 상황인데 말이다. 프랜시스 오고먼의 〈걱정에 대하여〉는 이런 '시대의 질병'이 되어 가는 걱정을 탁월하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탐구한 책이다.

걱정은 순환적이다. 가령 "내가 뒷문을 잠갔던가?"라는 사소한 질문으로 시작한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으로 커진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 "약속에 늦으면 어떡하지?"라는 다른 걱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걱정이 다른 걱정을 낳는 '걱정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아가 걱정은 우선순위를 혼동시키고, 간단한 일임에도 판단 능력을 저해한다. 그래서 저자는 걱정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떨림'의 일종으로 정의한다. 아직 오지도 않은(올 리 없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안전한 재테크를 궁리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과 고민에 휩싸여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걱정은 인간의 약점이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자는 걱정을 제거하기보다는 걱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고 제안한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 걱정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무엇보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내게 당면한 문제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살펴보자. 예를 들어 "취업을 할 수 있을까?"란 걱정보단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며 해결책을 풀어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 걱정하기보다 현실의 작은 행복에 몰두해보자. 쓸데없는 걱정의 덫에 걸려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야 말로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일지도 모른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중 이적의 OST 노래 가사는 이렇다.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신대현 기자

"법을 준수하자구요? 그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죠
저는 노예가 되느니 반역자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투쟁을 다룬 영화

서프러제트(Suffragette)

C U L T U R E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로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한 표가 주어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 성별과 학력, 장애의 유무에 관련 없이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참정권을 갖는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여성의 참정권은 수많은 여성들의 투쟁 끝에 얻게 된 권리인 것이다.

'서프러제트(Suffragette)'

20세기 에멀린 펑크허스크가( )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루고 있다. 'Suffrage'는 여성참정권을 뜻한다. 영화는 20세기 초 여국의 세탁공장 여성노동자 모드 와츠라는 캐릭터를 통해 시대에 순응하여 살아가던 여성이 서프러제트의 일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의 어머니로, 세탁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던 모드 와츠는 의회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증언한 후 여성 참정권 운동에 눈을 뜨게 된다. 여성 참정권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양육권마저 빼앗긴 모드는 여성을 억압하는 법을 고치기 위해 서프러제트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간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에밀리 데이비슨의 순교이다. 국가의 언론통제로 서프러제트의 활동이 알려지지 않자 서프러제트는 국왕이 참가하는 더비경주대회에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에밀리는 모드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경주마들이 질주하는 트랙 안으로 달려든다. 에밀리 데이비슨의 죽음으로 언론은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계속되는 투쟁 끝에 영국 여성들은 1918년 제한적인 투표권 허용을 시작으로 1928년 동등한 투표권을 얻게 되었다.

1893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호주와 핀란드가 1900년 대 초,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였으며 미국에서는 1920년 남녀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주어졌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해방과 민주주의 도입과정에서 참정권을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광복 이후, 1948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에게 남자와 참정권이 동등하게 주어졌다. 가장 최근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샤리아법)과 부족 전통에 따라 여성의 참정권을 금지해왔다.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2015년 여성의 참정권을 공식 인정한 것은 범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 20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프러제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페미니즘과 맞닿아있다. 가부장제는 여성의 당연한 권리를 억압했고,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를 위한 발판이 아닌 사회적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현대판 서프러제트,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 세라 개브런이 감독하고 캐리 멀리건, 헬레나 보넘 카터, 브렌던 글리슨, 앤마리 더프, 벤 휘쇼, 메릴 스트리프 등이 출연했다. (2015년 작품)

이송은 기자

제71회 칸 국제영화제 2관왕에 빛나는 영화 '버닝'
'버닝'하는 젊은 세대를 주제로
세상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

불타오른 자리에도 꽃은 피어난다

C U L T U R E

제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황금종려상은 놓쳤지만 각국 평론가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은 작품에 주는 상인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과 기술 부문 최고상인 벌칸상을 신점희 미술감독이 수상하면서 2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영화제 공식 소식지 스크린데일리가 집계한 '버닝'의 평점은 역대 최고점인 3.8점.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순수한 미장센으로서의 영화의 역할을 다하며 관객의 지적 능력을 기대하는 시적이고 미스터리한 영화"라고 극찬했다.

영화 '버닝'

영화 '버닝' 속 메타포는 끊임없이 '전이'한다.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 전화, 남산타워, 고양이, 판토마임, 해질녘, 우물, 비닐하우스… 마치 우로보로스(Ouroboros)처럼 메타포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영화의 모티브는 일본 유명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헛간을 태우다'로 '버닝'이라는 제목 그대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포는 버닝(burning), 즉 불태운다는 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불씨의 원초는 등장인물들이며 그들은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다. 그리고 영화 속 청춘은 무기력과 가난을 껴안고 버티듯 살아야 하는 종수(유아인)와 해미(전종서), 그 반대편에는 부유층 청년 벤(스티븐 연)으로 극명하게 양분돼 있다.

'버닝'의 공간은 경기도 파주로 종수와 해미가 살았던 동네이다. 종수는 밤마다 대남 방송이 울려대고, 사람들의 터전과 버려진 비닐하우스가 한데 뒤섞여 있는 후미진 고향으로 되돌아온다. 그는 파트타임 노동자로 일을 찾아 경계를 넘나드는 계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우연히 만난 고향 친구 해미는 한 줄기 빛이자 이성이었다. 해미도 특정 직업 없이 하루를 버티며 햇빛도 들지 않는 작은 원룸에서 살아가는 여성으로 착실히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다. 그곳에서 단순히 배가 고픈 상태인 '리틀 헝거'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허기를 느끼는 '그레이트 헝거'를 알고 '그레이트 헝거'가 되기를 갈망한다.

반면 벤은 스콧 핏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게츠비' 속의 게츠비 같은 인물이다. 젊은 나이에도 서울 유명동네인 서래마을에 거주하고, 포르쉐를 끌고 다니며 잘 나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기도 하는 수수께끼의 남자다. 벤과 그의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종수와 해미를 조롱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무례함을 보인다. 벤과 세상으로부터 종수는 시험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는 상황에 자주 처한다. 하지만 분노를 표출할 마땅한 창구가 없어 무기력해지지만 항상 '버닝'의 계기가 필요했고, 벤은 해미의 실종에 연관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를 자극했다. 벤을 향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한다. 이것이 해미의 실종에 대한 종수의 복수일 수도, 부유한 젊은이들과 세상에 대한 분노의 발현일 수도 있지만 그는 불타오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을 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줌의 재뿐이었다.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다"고 말한 벤의 말 뒤 종수는 비닐하우스가 타는 것을 지켜보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꿈으로 꾼다. 종수는 이 시점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리틀 헝거로서의 자신을 비닐하우스와 함께 태운다. 이윽고 그 재 속에서 그레이트 헝거를 꽃피운다. 종수의 심경변화를 어떤 소리나 냄새 없이 오로지 시각적으로만 표현한 이 장면은 영화에서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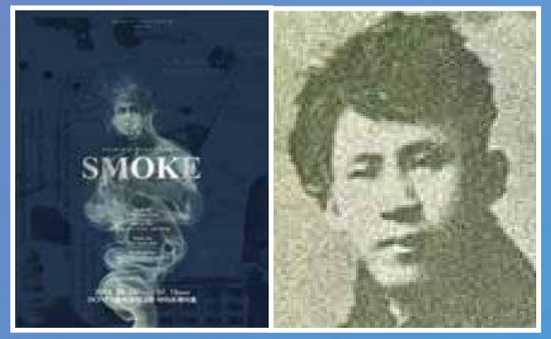
동양에서 가장 오랜 농경방식인 화전농업에서 생긴 재는 몇 년 동안 작물의 생육을 양호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재가 생기는 '버닝'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종수의 '버닝'은 일그러져 엉뚱한 곳에 불이 옮겨 붙었지만, 올곧은 '버닝'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힘이 될 것이다. 영화 속 청년 세대의 모습은 상처받고 엉뚱한 방향으로 불타오르는 존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올바른 '버닝'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신대현 기자

"나는 거울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속의 나는 역시 외출중이다.
나는 지금 거울속의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속의 나는 어디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오감도 시 제15호 중)

뮤지컬 '스모크'

C U L T U R E



시인 이 상

뮤지컬 °스모크'에는 글을 쓰는 고통과 현실에 대한 괴로움으로 죽음을 택하려는 남자 초(超), 바다를 꿈꾸는 순수한 소년 해(海), 그리고 이들에게 희망이자 고통의 존재인 홍(紅)이 등장한다.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시인 이상(李箱)의 천재성, 식민지 조국에서 살아야만 했던 예술가의 불안과 고독,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날고 싶었던 열망과 희망을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 이상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낸 작품이다.

시대를 초월한 천재시인 이상의 삶 그려

해(김해경 · 이상 본명)는 자신의 글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과 초의 위치를 바꿔 그에게 모든 현실적 책임을 지게하고, 거울 속으로 숨어버린다. 초는 괴로움에 죽고 싶어 거울 속의 세계로 들어와 해를 찾아내고, 홍과 대면하게 된다. 초는 사실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짐을 함께 들어줄 존재인 해는 자신을 외면하고, 해가 희망의 존재인 홍을 가둬버린 상태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죽음뿐이었던 것이다. 갈등 속에서 해는 초의 의도대로 홍 앞에서 자살하려 하지만 희망과 미련을 가진 홍이 끝까지 설득한다. 해는 결국 초와 홍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으며 그 사실을 받아들여 살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다른 자아들과 마주하고 잃어버린 이상향과 감정을 되찾음으로써 온전한 나로서의 삶을 다짐하게 된다. 자신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를 향해 비웃음 섞인 태도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며 막을 내린다.

'스모크'의 또 다른 매력은 뮤지컬 넘버(대사 중간 삽입되는 노래)이다. 연극을 보고 난 후에는 인상 깊은 대사가 머릿속에 남지만, 뮤지컬의 경우 대사뿐만 아니라 넘버의 멜로디가 기억에 남기도 한다. 멜로디 위에 배우들의 목소리를 더하여 극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총 23개의 곡으로 구성된 넘버의 가사들은 이상의 시에서 따온 것이다. 시만 읽을 때에는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시에 멜로디가 가미되어 신나는 가요처럼 들리기도 한다. 난해하다고 알려진 이상의 시도 작곡가의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넘버는 공식 음원에서 찾을 수 없다. 직접 공연장에 가서 라이브의 묘미를 즐기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공연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면 이상의 작품들을 먼저 읽고 가길 바란다. 공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오감도' '날개' '거울' 세 작품은 뮤지컬 내용의 핵심이므로 참고했으면 한다. 그리고 '스모크'의 초와 홍이 김해경의 또 다른 모습인 것처럼, 이상의 글에는 '분신'이 많이 나타난다. 공간에서의 분신은 '오감도 시제15호' '거울'에서, 시간에서의 분신은 '선에 관한 각서5', '종생기'에서, 심리적 분신은 '지도의 암실' '슬픈 이야기' '공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연을 보고 이상이라는 인물과 그 의 작품에 흥미가 생긴다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다.

초(超) 역에는 김재범, 김종구, 김경수, 임병근, 해(海) 역에는 박한근, 황찬성, 윤소호, 홍(紅) 역에는 김소향, 정연, 유주혜가 무대에 오른다. 대학로 DCF대명문화공장에서 7월 15일까지 공연한다.

한규현 기자

20세기 현대조각 거장, 자코메티를 만나다!
"Walking Man" 원본 아시아 최초로 공개
현대인의 불안과 절망을 실존적 고뇌 조각으로 형상화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C U L T U R E

지난해 말 시작해 지난 4월 15일 막을 내린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은 위대한 조각가와의 특별한 만남이었다. 스위스 출신 조각가 자코메티는 20세기 초반 유럽을 휩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세계를 풍미했던 실존의 고뇌를 조각으로 표현한 작가다. "Walking Man"(걸어가는 사람)처럼 길게 늘인 형태의 인물 조각상은 전후 유럽을 휩쓴 회의주의와 불안감을 보여 준다. 실존주의 철학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는 '걸어가는 사람'에서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상실감, 절망, 실존적 고뇌를 읽고 자코메티의 작품론을 쓸 정도였다.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이번 전시는 자코메티의 일생과 대작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기획되어 그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일생에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 그가 창조한 대작을 차례로 보여준다. 자코메티의 작품은 주로 석고와 청동 소재를 사용해 불규칙하게 마감한 막대기 같은 인물상이다.

전시에는 두상을 포함한 조각상 40여점과 자코메티의 대표작 중 하나인 "Walking Man" 원본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었다. "걸어가는 사람"은 1, 2차 세계대전을 목격한 자코메티가 20세기의 아픔과 혼란을 걸어가는 사람 안에 녹여냄으로써 시대에 대한 성찰을 나타낸 작품이다. 그의 인물상들을 정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부피도 무게도 없는 것 같지만 곧 멀리 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을 준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부스러질 것 같이 얇은 형체를 가지고도 나아가려는 의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보인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숭고함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아이콘'이 된 예술 작품이다.

좌상 조각인 '로타르 좌상'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처럼 숭고한 기운과 명상적 색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가 깨달은 삶에 대한 통찰과 죽기 전 해탈한 구도자의 면모가 보이는 생애 마지막 자화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삶에 대한 비통함과 아쉬움, 조각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고픈 바람을 나타냈다. 작품 속 살아있는 자코메티의 시선이 마치 우리를 응시하는 듯 하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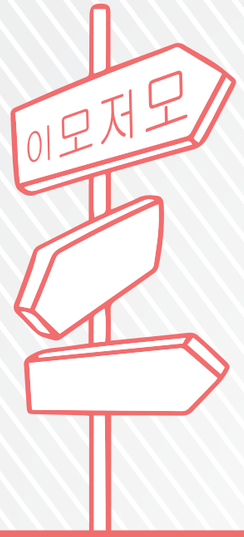
특별전에는 자코메티를 소개하는 글과 그림, 작품 외에 특별한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걸어가는 사람'은 '침묵과 성찰의 방'이라는 공간에 설치되어 '걸어가는 사람'을 가운데에 두고 그 주위에 방석이 깔려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도록 했는데 관람객들은 작품을 보며 묵상하며 자코메티의 영혼과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전시를 관람하고 나오면 자신만의 모토를 적어 벽면에 붙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자코메티의 작품을 보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람객들에게 있어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 다.

한규현 수습기자

21C는 SHINHAN Super-Versity 시대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교양인 양성 Super-Edu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2018 신한대학교 정년 퇴임식

공법행정학과 박명준 교수, 임상병리학과 신용칠 교수, 임상병리학과 송운흥 교수,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오흥진 부교수, 김태진 중앙도서관 부관장이 정든 신한대 캠퍼스를 떠났다. 신한대학교는 지난 2월 28일 의정부 캠퍼스 은혜관(Sola Gratia)에서 이들에 대한 정년퇴임식을 마련하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학교발전에 열과 성을 다한 이들의 공을 기렸다. 김병옥 전 총장은 "퇴임 교수들은 신한대학이 어려웠던 시절 대학발전에 헌신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 오늘의 대학을 일군 산 증인"이라며 "캠퍼스를 떠나더라도 영원한 신한인으로 남아 신한대학의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림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학술회의 개최

식민지배, 탈냉전경험공유 아시아 국민국가 통합·분리 분석, 국민국가의 여러 문제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재해석 시도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경계' 연구를 통해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체제를 모색해온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지난 2월 1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국민국가의 열망과 분리의 현실'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식민지배, 냉전, 탈냉전이라는 공통적 경험을 가진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민국가 통합과 분리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의미를 비교 정치적으로 성찰하고 국경, 시민권, 주권, 민족과 같은 국민국가의 여러 문제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지정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시각으로 재해석을 시도했다. 분단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의 연구는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송효림 수습기자

KB손해보험 배구단, 신한대학교에 발전기금 5,000만원 기증

KB손해보험(배구단)이 신한대학교에 발전기금 5,000만원을 기증했다. 신한대학교는 1월 31일 의정부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KB손해보험(배구단)과 산학협력 협약체결 및 대학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발전기금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KB손해보험(배구단)은 교수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신한대생의 현장실습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신한대학교는 매주 토요일 신한대학교 체육관을 KB손해보험(배구단)이 사용토록 하고 주차장을 개방키로 했다. KB손해보험은 보험 전문 평가기관인 미국 A.M. Best사로부터 A- 등급을 13년 연속 획득하고, 2017년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2년 만에 신용등급이 기존 A-에서 A로 상향된 명실상부한 초우량 보험사이다. 이러한 우량기업과 맺은 협약에 의해 앞으로 신한대학교 관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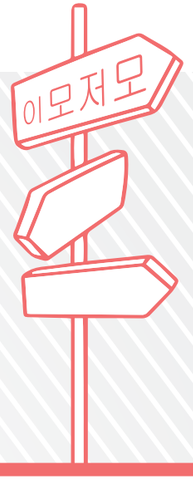
최수민 기자

산학협력단 올해 처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 배출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비봉사단원 39명을 배출했다. 예비봉사단원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약에 따라 2월 6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120기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직무교육에서 한국어교육, 간호, 유아교육 등 9개 직종의 이론과 실습, 현장실습 등 4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13개 국가에 파견되어 2년간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한대학교는 2014년부터 KOICA의 위탁으로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 직무교육을 맡아 봉사단원의 직무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수민 기자



신한대,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우수

신한대학교가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이 실시한 2017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신한대 장애학습지원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이 4월 9일 발표한 평가 결과 1, 2캠퍼스가 모두 일반대학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밝혔다. 전국 348개 대학 422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신한대는 56개 우수 일반대학(단과대학 포함 68개)에 포함되어 '보통' 등급을 받은 2014년 실태평가 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의정부캠퍼스는 합계 배점 100점 중 82.51점,동두천 캠퍼스는 80.66점을 각각 받아 2014년 전체 평균점수 66.7점을 크게 상회했다. 우수등급을 받은 대학의 비율은 전체의 16.1%이며 최우수 대학은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33개 대학이다. 평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영역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서면평가, 현장방문 평가, 종합평가 등 3단계로 실시됐다. 3년 마다 실시하는 이번 평가에서 신한대는 선발 영역과 시설·설비 영역에서 2014년 보다 약간 하락했으나 교수·학습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크게 올라 의정부캠퍼스는 배점 50점에 근접한 46.26점, 동두천캠퍼스는 47.11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각각 받았다. 현재 신한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모두 4명이다.

신한대학교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교수·학습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권 보장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수업학적팀, 인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수립 운영한 것이 도움이 됐다. 또 장학지원,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 노력도 한 몫을 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는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 실시됐으며 2008년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이 평가결과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최우수 대학에 대학 부총리 표창과 함께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학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대 종합대학 편제완성 첫 졸업생 배출, 경쟁력갖춘 수도권 종합대학 위상 굳혔다

신한대학교는 2월 23일 의정부 캠퍼스 은혜관에서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4년제 전문학사를 배출했다. 이날 학사학위를 받은 전문학사들은 신한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2014년 입학한 학생 1,456명이다. 51명은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날의 학위수여식은 신한대학교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종합대학 승격 후 4년, 첫 졸업생 배출로 신한대학교가 경기북부를 넘어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종합대학의 위상을 굳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4년간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대학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학편제에서도 7개 단과대학 21개학과로 새롭게 바뀌어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의 위치를 확보했다. 4년 전 종합대학으로 출범하면서 'New-versity'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신한대학교는 해마다 입시경쟁률에서 전국 상위권의 위치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끈데 이어 이날 처음으로 4년제 전문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수민 기자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운영회사 신한대생 취업 등 산학협력협약 체결

신한대학교는 2월 27일 의정부캠퍼스 은혜관(Sola Gratia)에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및 투자자문회사인 액티스 그룹 액티스코리아파트너스 주식회사와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김병옥 신한대학교 총장과 액티스코리아파트너스 주식회사 와이럼리 대표이사 사이에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액티스코리아파트너스는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신한대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졸업생의 취업과 알선에 협조키로 했다. 액티스 그룹은 이밖에 신한대와 국제금융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를 활용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의정부 지역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도 진행키로 했다.

〈최수민 기자〉

신한대학교의 참모습 알린다 '신한의 얼굴' 제5기 신한슈퍼스타 출범

신한대학교 학생홍보대사인 2018년 제5기 신한슈퍼스타가 4월 6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선발된 17명의 재학생들은 신한대학교를 알리는 '학교의 얼굴'로 각종 대내·외 활동에 참여해 신한대의 참 모습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신한대학교에 지원을 원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예비신한인'의 캠퍼스투어를 진행하고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대입 수시·정시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신한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신한대 부스를 찾는 학부모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다. 또 이들은 대학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대외 홍보활동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전국대학생홍보대사연합(ASA-K)에도 가입해 타 대학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제5기 신한슈퍼스타 17명은 지난해 활동한 제4기 슈퍼스타 4명이 연임하고 신입 멤버 13명을 새로 선발해 구성됐다.

최수민 기자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위원 선임

신한대학교 부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자문단 원로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자문단은 원로자문단과 전문가 자문단,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최완규 석좌교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2015년 분단문제를 경계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북한문제 전문 석학이다. 최완규 석좌교수는 "북한대학원대학 등에서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정부의 자문요청에 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또 "이번에 남북이 합의한 정상회담은 논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수민 기자

치위생학과 1기,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100% 합격 재학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10편 이상의 논문도 게재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100% 합격의 신기록을 세웠다.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1기생인 4학년 학생들은 그 동안 학생신분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서울대병원과 강남 삼성병원, 경희대병원 등 상급 치과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임상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워 국가시험 전원합격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종합대학 이전부터 보건계열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한 신한대학교는 종합대학 출범 이후 반세기에 걸친 위생계열 전통을 이어 받아 간호, 치위생, 임상병리, 치기공 등 의료분야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여 해마다 높은 입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송효림 수습기자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 '스마트 교수법' 강의메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CW 테마강의 플랫폼 개설

신한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의 '스마트 교수법' 강의메뉴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KOCW(Korea Open Course Ware) 테마 강의 서비스에 새롭게 추가되어 스마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 교수법을 전국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KOCW가 이번에 추가한 강의 서비스는 스마트 교수법을 특화시켜 별도의 강의 플랫폼을 개설한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김 교수는 KOCW '스마트 교수법' 테마 강의에 지금까지 81개 강좌 577개 강의를 업로드 해왔다.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 공개교육자원운동)의 하나로 만들어진 KOCW는 국내 • 외 대학 및 기관에서 공개한 이러닝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료로 제공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고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공동활용 체제이다. 신교수는 "교수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 교수법의 질과 내용을 다양화 하는 노력이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수민 기자

중앙도서관, 교직원·지역 주민 도서기증 1만권 돌파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종합대학 출범 이후 4년제 수준의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9월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당신의 도서기증, 신한의 미래를 바꿉니다', '잠자고 있는 책을 꿈꾸는 책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중앙도서관 Book Together'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한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증된 도서는 모두 1만965권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 등 외부에서 기증한 도서는 1,024권이다. 유보선 부총장은 "도서기증운동은 교내 구성원들의 협조를 통해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도서기증 운동에 적극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도서기증 캠페인이 신한대의 학문전통을 살찌우고 학생들이 책 속에서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림 수습기자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표준 강화 불구

신한대학, 국제표준충족 인증 연장 획득

신한대학교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2015년 판 표준에 따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5월 11일 획득했다.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2009년 판 ISO14001 인증을 획득했던 신한대학교는 올해 강화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다시 받았다. 2015년 인증기준은 전년도 활동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SO14001 인증을 받는 것은 ISO14001 규격에 맞게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아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대학교는 지속가능한 그린 캠퍼스 구현을 위해 환경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민성 수습기자

신한대-러시아 기초연구국제대 MOU 맺어

동북아를 넘어 러시아와 유럽지역으로 학술교류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신한대학교가 이번에는 러시아 중심지 모스크바 소재 대학과 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한대학교와 러시아 기초연구국제대학교(IUFS)는 5월 29일 신한대 의정부캠퍼스 에벤에셀관 다목적실에서 김병옥 총장과 산티 P. 자야세케라 러시아 기초연구국제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신한대학은 교환학생 등 신한대 유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러시아 기초연구국제대학교는 신한대학교의 유학생 모집을 위해 러시아 지역 다른 대학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산티 P. 자야세케라 총장과 동행한 황상근 스몰뇌대학 미술학부 외국인 학장 겸 러시아 예술인 국제재단 대표는 신한대학교에 미술품을 기증했다.

국립특수교육원 실태평가 결과, 신한대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우수'

2014 평가당시 보다 한 등급 상승해

신한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국립특수교육원이 4월 9일 발표한 평가 결과 1, 2캠퍼스가 모두 일반대학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보통' 등급을 받은 2014년 실태평가 보다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이다. 전국 348개 대학 422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신한대는 56개 우수 일반대학(단과대학 포함 68개)에 포함되었다. 우수등급을 받은 대학의 비율은 전체의 16.1%이며 최우수 대학은 전체의 7.8%에 해당하는 33개 대학이다. 신한대학교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교수·학습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권 보장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수업학적팀, 인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수립 운영한 것이 도움이 됐다. 또 장학지원,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 노력도 한 몫을 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최우수 대학에 대학 부총리 표창과 함께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대학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성 수습기자

신한대, 아시아대학생댄스대회 챔피언고지 올랐다

신한대학교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신한대학교는 지난 4년 동안 K-POP을 중심으로 신한류 뮤지션을 육성하고 스트릿 댄스와 모델 콘테스트로 대중문화를 이끌 젊은 신인을 발굴하는 전략을 꾸준히 펼친 결과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사실상 성공했다. 이번에는 공연예술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신한대 댄스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연예술학과 신지섭, 유재준, 박세찬, 이홍신 학생 4명으로 구성된 신한대 팀은 5월 26일부터 이틀 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생 댄스 챔피언십(AUDC)에서 우수한 기량과 예술성으로 파이널 출전 15개 팀을 제치고 우승했다. 아시아 파이널에는 7개 국가 16개 도시를 대표하는 대학팀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3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대원 시설지원팀
강성현 산업디자인전공
강수철 학생지원팀
강정원 유아교육과
곽영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권영길 교양학부
권영일 임상병리학과
김경회 유아교육과
김기순 산업디자인전공
김남용 공법행정학과
김동섭 호텔조리전공
김문규 학술정보팀
김민정 뷰티헬스전공
김봉건 입학사정팀
김상욱 발전기금팀
김상현 방사선학과
김선명 에너지환경공학과
김옥희 교양학부
김용섭 교목실
김정훈 전자공학전공
김종권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종만 교육총괄팀
김주헌 입학총괄팀
김창희 학생상담팀
김호성 방사선학과
마상철 방사선학과
박주원 유아교육과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박호균 컴퓨터공학전공
박효철 공간디자인전공
배시애 교양학부
배영금 국제어학과
서수연 뷰티헬스전공
서종원 임상병리학과
송기상 국제교류팀
송운흥 기획처
신경환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신용칠 임상병리학과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오병칠 공간디자인전공
오이균 공법행정학과
오흥진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우두한 시설지원팀
유병엽 대학본부
윤미숙 치위생학과
윤상곤 시설지원팀
윤효숙 임상병리학과
이강석 시설지원팀
이경희 치위생학과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이기찬 교양학부
이남전 교학팀
이대성 국제교류팀
이대홍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동원 학생지원팀
이명호 호텔조리전공
이선민 공간디자인전공
이승영 산학지원팀
이웅배 뷰티헬스전공
이은정 호텔조리전공
이정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찬주 전자공학전공
이청재 치기공학과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임효진 발전기금팀
장인봉 공법행정학과
장정순 사회복지학과
전영주 홍보팀
전법주 에너지환경공학과
전현주 국제어학과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조규봉 임상병리학과
조상민 시설지원팀
조성심 사회복지학과
조성윤 시설지원팀
조우택 학술정보팀
진선범 교육총괄팀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최승구 임상병리학과
최에스더 뷰티헬스전공
최지연 학생상담팀

최진영 식품영양전공
최화식 임상병리학과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홍경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홍수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홍승예 중앙도서관
황경숙 치기공학과
황만수 컴퓨터공학전공
황보상원 공법행정학과
황재석 에너지환경공학과
황희숙 사회복지학과
김창욱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경기도회
송내교회

자르는 선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인적사항

□ 동문 □ 재학생 □ 학부모 □ 법인(기업) □ 일반인(비동문) ※ 중복체크 가능

성 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자택)		(TEL)
	(직장)		(TEL)
E-mail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기부 추천인	

약정

총 액	금( )원 (₩)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총( )회 / 월( )원씩	
기부금 용도	□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기금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CMS	CMS(기부자의 동의하에 기부자 계좌에서 자동출금해가는 방식)			
	결 제 일	□ 일	결제은행	은행
	결 제 계좌번호			
	예금주명	□ 기부자명과 동일 □ 기부자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아래내용 작성) 예금주명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무통장 입 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원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3 (Fax 3169)
■ 우편 :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8. 08 / 194호

편집후기

박현규 편집장

대학교에 들어와서 아마 가장 바빴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편집장이 된 지금에야,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로이 깨닫는 중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을까.

김치현 기자

이번 195호에는 많은 것들을 직접 취재하고 촬영할 수 있어, 정말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었다. 특히 축제와 체전에서 학우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나도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어 갔다.

한규헌 기자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다음 기사를 쓸 때는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신한톡톡에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게 항상 감사드린다.

오소영 기자

한 학기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시간들의 연속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 당도한 곳은 여름의 문턱이었다. 막상 스쳐지나간 것들을 떠올리니 기억나지 않았다. 그만큼 마주한 현실에만 집중해야 했다. 이제 문턱을 넘어 오르막길을 오르려 한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해낼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안녕히.

이송은 기자

195호 편집을 마냥 좋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이번 호에 내 이름을 걸고 자랑스럽게 실린 기사 두 편 외에도 내 노트북 휴지통에는 무수히 많은 기사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195호 편집과정 중 수차례의 취재와 인터뷰, 퇴고를 거치면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다. 시험기간이 겹쳐 정신적·신체적으로 지친 가운데 기사를 작성하면서 포기를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었다. 지금은 가시밭길처럼 느껴지는 이 과정도 좋은 기자로서 성장해나가는 짧은 여정이라 생각한다. 다음 196호 편집후기를 작성할 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기자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차수빈 기자

총의치의 총 자도 모르던 내가 총의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된 것처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학년 1학기가 끝났다. 종강과 함께 195호를 마치며 방학을 보람차게 잘 보내고 싶다.

최수민 기자

이번 호에서는 축제관련기사를 썼는데, 축제기간에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의 활동적인 에너지를 카메라와 기사에 열심히 담을 수 있어 좋았다. 벌써 2018년의 1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기말고사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마감에 집중했던 학생기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송효림 기자

194호에 실릴 기사를 작성하다보니 벌써 가을이 되었음을 느꼈다. 아직 한 학기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것같이 느껴진다. 남은 학기들도 느슨해지지 않고 신한톡톡을 이어갈 수 있기를 스스로 다짐해본다.

김민성 수습기자

신문사에 들어오고 두 번째로 작성해보는 편집후기이다. 지난 호 편집후기를 작성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195호 편집에 참가하고자 다짐했는데, 스스로 느끼기엔 여전히 모자란 점이 많았던 것 같다. 곧 있으면 '수습'이라는 칭호를 떼고 기사 작성에 참가해야 하는데, 미래의 내가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 걱정이 지금의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더쎈!

창조와 융합교육 | 글로벌 현장교육 | 신한(信韓)류 미래교육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센세이셔널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펼쳐 나갑니다!

■**수시모집** : 2018년9월10일(월)~14일(금) ■**정시모집(가,나,다군)** : 2018년12월29일(토)~2019년1월3일(목) ■**입학안내** : 031)870-3211~7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